

### Ⅲ. 국학 연구

1. 국어학
2. 국문학
3. 국사학

### Ⅲ. 국학 연구

國學은 국어·국사·문학·민속 등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일제 강점기에 있어 국학 연구는 민족문화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학 연구활동, 즉 국학운동의 전개는 일종의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일제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sup>1)</sup>

#### 1. 국어학

##### 1) 국어연구 단체의 조직과 국어연구

###### (1) 국어연구 단체

1910년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 직후 周時經 등 국어연구자들은 1908년에 조직된 國語研究學會를 폐지하였다가, 1911년 9월 朝鮮語文會를 조직하여 국어강습소를 이은 朝鮮語講習院을 운영하여 왔다. 국어연구학회나 조선어문회는 주시경이 주도한 국어강습소의 강습생을 중심으로 조직하였던 단체로 1910년대 일제의 강압적인 무단통치기에 있어서는 강습활동을 통하여 600여 명의 강습생을 배출하였으며, 연구자들은 개인적으로 국어연구를 진행하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한국인의 거족적인 저항에 접한 일제는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무단통치의 외형만을 바꾸어, 부분적으로 언론·출판·집회·결

1) 國學 전반에 관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韓永愚, 〈韓國學의 概念과 分野〉(《한국학연구》 1, 단국대 한국학연구소, 1994).

李萬烈, 〈국학의 성립 발전과 그 과제〉(《東方學志》 100, 1998).

사를 허용하였다. 이에 강습활동에 치우쳐 있던 국어연구자들이 국어연구를 보다 체계화·조직화하기 위하여 1921년 朝鮮語研究會를 조직할 수 있었고, 이 단체는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개칭하였으며, 1947년에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제 강점기의 국어연구와 국어운동은 대체로 이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가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1931년은 국어연구단체가 여러 개 조직된 해였다.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개칭되었을 뿐만 아니라, 京城帝國大學 朝鮮語及文學科 졸업생들에 의하여 朝鮮語文學會가 만들어졌다. 또한 조선어학회가 전개한 문자통일운동의 내용에 반대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朝鮮語學研究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34년에는 국학 전반을 다루는 震檀學會가, 1935년에는 朝鮮音聲學會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연구단체들은 국어연구와 국어운동에 진력하였으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하여 그 활동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조선어학회의 경우에는 이른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상당수의 관계자들이 해방될 때까지 투옥되기도 하였다.

#### 가.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

조선어연구회는 1921년 12월 3일 주시경 문하에서 직·간접으로 배출된 張志暎·李秉岐·申明均·金允經·權惠奎·李奎昉·李昇圭·任璟宰·崔斗善·李常春 등이 徽文義塾에 모여, “朝鮮語의 正確한 法理를 연구함을 목적”(회칙 2조)으로 조직된 국어 전문연구단체였다. ‘조선어’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국어에 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던 조선어연구회의 실제활동은 연구발표회·강연회·강습회 등을 통한 국어운동이었다. 1927년 2월 8일자로 창간된 《한글》은 정식 학회 기관지는 아니었지만 권덕규·이병기·崔鉉培·鄭烈模·신명균이 동인으로 참여한 최초의 국어연구 전문지였다. 동인지 《한글》 창간호에 실린 창간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글’이 나왔다. ‘한글’이 나왔다. 훈민정음의 아들로 나왔으며 이천 삼 백만 민중의 동무로 나왔다. 무엇 하러 나왔느냐. 조선말이란 광야의 황무를 개척하

며 조선글(한글)이란 寶器의 목은 녹을 벗기며 조선 문학의 正路가 되며, 조선 문화의 원동력이 되어 조선이란 큰 집의 터전을 닦으며, 주초를 놓기 위하여 병인 이듬해 정묘년 벽두에 나왔다. ... 갓난아이인 ‘한글’은 힘이 적으나 그 할 일인즉 크도다. 아득한 속에서 목은 옛말을 찾으며,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바른 學理 법칙을 찾으며, 막으론 세계 어문을 참작하며 안으로 우리말과 글을 바로 잡아 통일된 표준어의 사정을 펴하며, 완전한 문법의 성립을 버리며 훌륭한 자전의 실현을 뜻하니 그 할 일이 어찌 끔찍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조선어연구회의 사명을 표기법의 정리·표준어의 사정·문법 정리·사전 편찬 등임을 밝히고 있었다. 이 일들은 바로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개편된 이후 실제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비록 조선어연구회가 학술단체로 출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국어통일운동에 오히려 깊은 관심을 두었다고 할 것이다. 4·6판의 팜플렛과 같은 동인지 《한글》은 1928년 10월까지 9호가 간행되고 중지되었으나, 1932년에 창간되는 조선어학회의 기관지 《한글》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조선어연구회에서는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에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이후 이 날을 ‘가갸날’이라 하고 매년 기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28년부터는 한글날로 기념하였다. 이밖에도 주목할 조선어연구회의 활동으로는 1926년부터 1929년까지 강습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철자법 통일운동을 전개하였고, 1929년 10월 31일에는 한글날 기념회를 가진 뒤李克魯를 책임자로 하는 《조선어사전》 편찬회를 조직한 일이었다. 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철자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여 조선어연구회의 주장을 관철시킨 바 있었는데, 이는 학회가 민간운동을 외면하고 일제의 권력과 결탁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철자법 개정을 이루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sup>2)</sup>

1931년 1월 10일, 조선어연구회는 총회에서 조선어학회로 개칭하고, 1932년 1월 9일 정기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였다. 즉 학회의 목적을 ‘朝鮮語文의 연구와 통일’로 명기하였는데, 어문연구와 표기법의 통일을 학회 설립목

2) 金敏洙, <朝鮮語學會의 創立과 그 沿革> (《周時經學報》5, 1990), 59~60쪽.

적으로 못박았던 것이다. 이미 조선어연구회에서는 1930년 10월부터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착수하고 있었는데, 조선어학회에서는 이를 확인한 것이었다.

조선어학회에서는 기관지 《한글》을 1932년 5월 1일자로 창간하였다. 동인지 《한글》을 잇는 것이지만, 기관지로는 창간호였다. 편집을 책임진 李允宰는 〈한글을 처음 내면서〉라는 창간사에서 이 기관지의 발간경위와 사명을 이렇게 썼다.

우리가 우리 글을 잘 알자 하는 소리가 근년에 와서 더욱 높아 간다. 우리는 하로 바빠 목정 발같이 거칠은 우리 한글을 잘 다스리어 옳고 바르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사 년 전에 몇 분의 뜻 같은 이들끼리 《한글》잡지를 내기 비롯하여 일년 남이나 하여 오다가, 온갖 것이 다 침체되는 우리의 일인지라. 이것마저 이어갈 힘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쉬게 된 것은 크게 유감되는 바이다. 우리는 이제 시대의 요구에 맞추며 본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여 이 《한글》잡지를 내게 된다. 이로써 우리 한글의 정리와 통일이 완성하는 지경에 이를 것을 믿는다. 무릇 조선말을 하고 조선 글을 쓰는 이로써 누가 이에 공명하지 아니할 이 있으랴. 오직 뜻을 같이 하고 힘을 어우러 말과 글이 더욱 환한 빛을 내기로 하자. 이에 《한글》을 냄에 대하여 한 말을 하는 바이다(李允宰, 〈한글을 처음 내면서〉, 《한글》1-1, 1932, 3쪽).

특히 이윤재는 한글의 정리와 통일의 완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바로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가 지속적으로 내세웠던 과제였다. 《한글》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극심해졌던 1942년 5월 1일자(제10권 2호, 통권 93호)로 중단되기까지 한글의 정리와 통일 및 그 보급을 위해 크게 공헌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어학회는 국어를 계몽·선전하였으며, 국어의 통일운동을 전개하였고, 국어사전의 편찬을 시도하였다. 즉 조선어학회는 〈철자법통일안〉을 1933년 10월 29일 제487회 한글날에 《한글마춤법통일안》으로 공표하였으며, 1936년 10월 28일 제490회 한글날에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였다. 또 1941년 1월 15일에는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을 공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930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일보사·동아일보사 등이 주최한 하기 한글강습

회를 후원하였으며, 1941년까지 한글반포기념식을 주관하였고, 비록 완성되지는 못하였으나 《朝鮮語大辭典》을 편찬하고 있었다. 1934년 한글날에는 朝鮮語學圖書展覽會를 개최하여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학회의 연구발표회도 1930년부터 1937년 말까지 꾸준히 계속하여 학문적 성과를 알리고 있었다.<sup>3)</sup> 이처럼 국어운동을 전개하던 조선어학회는 1942년 10월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실상 일제에 의하여 강제 해체되고 말았다.<sup>4)</sup>

#### 나. 조선어학연구회

朝鮮語學研究會는 1931년 12월 10일, 국문 記寫法에 관한 朴勝彬의 주장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啓明俱樂部를 중심으로 조직한 국어연구단체였다. 이 조직은 조선어학회의 활동에 대한 대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규칙에 목적을 ‘朝鮮語學의 연구와 記寫法의 정리’(2조)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었음이 바로 그것을 알려준다. 1932년 9월에 발표된 〈朝鮮語學研究會趣旨書〉에는 “言文의 정리와 통일은 現下 조선민중이 일반적으로 절실히 요구하는 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한글과 학설이 과연 민중의 요구에 應할만큼 얼마나의 학술적 가치가 있는가?”라고 밝혀, 조선어학연구회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드러냈다.

조선어학회가 1933년 10월 〈한글마춤법통일안〉을 확정·발표하자 조선어학연구회에서는 박승빈의 학설을 중심으로 조선어학회의 주장에 반대하기 위하여 1934년 2월 기관지 《正音》을 발행하였다. 그 해 6월에는 ‘朝鮮文 記寫整理 期成會’를 조직하고, 7월에는 ‘한글式 新綴字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어운동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지 않았으나,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표기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즉 조선어학연구회나 조선어학회나 원칙적으로는 국어의 정리와 통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일면 국어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킨 부분도 적지

3) 한글학회, 《한글학회 50년사》(한글학회, 1971), 89~97쪽.

4) 한글학회, 위의 책.

金敏洙, 앞의 글.

金允經, 《朝鮮文字及語學史》(朝鮮記念圖書出版館, 1938).

《한글 金允經全集》2(延世大 出版部, 1985), 545~673쪽.

朴炳采, 〈日帝下の 國語運動 研究〉(《日帝下の 文化運動史》, 民衆書館, 1969), 448~455쪽.

않았다. 다만 그 이론이 박승빈 개인의 학설에 의지하는 수준이었고, 참여 인사 자체가 국어연구자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일반의 호응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어학연구회에서는 기관지 《正音》을 1941년 4월까지 총 37호를 발간하여 국어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발간되지는 못하였으나 朝鮮光文會에서 주시경·권덕규·이규영 등이 편찬하던 《朝鮮語辭典》의 원고를 계명구락부에 이관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어학연구회 역시 국어연구와 민족문화 수호에 일정하게 공헌하였다고 할 것이다.<sup>5)</sup>

#### 다. 조선어문학회 · 진단학회 · 조선음성학회

朝鮮語文學會와 震檀學會, 그리고 朝鮮音聲學會는 대체로 대학에서 국어학 또는 언어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참여한 단체였다. 조선어문학회는 국문학과 국어학을 함께 연구하였으며, 진단학회는 국어학뿐 아니라 역사학·국문학·민속학 등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오히려 국어학자들의 활동이 저조하였다.

조선어문학회는 1931년 6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朝鮮語學及文學科 졸업생인 金在喆(3회)이 주동이 되어 趙潤濟(1회)·李熙昇(2회)·李在郁(3회)이 동인으로 참여한 학술연구모임으로, 친목과 조선어학·조선문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경성제대는 일제에 의하여 1924년 개교하여 1929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한국인 졸업생은 소수였고 특히 조선어학급문학과 출신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최고학부에서 국문학과 국어학을 전공하였지만, 특히 국어학에 있어서는 조선어학회와 같은 연구단체에 비하여 짧은 연륜으로 국어연구를 주도하기는 어려웠다. 조선어문학회는 그 해 7월부터 동인지 《朝鮮語文學會報》를 간행하여 1933년 7월까지 7호의 회지를 발간하였는데, 국어연구자로는 이희승·方鍾鉉·李崇寧 등이 참가하였다. 1933년 1월 김제철의 사망으로 위축된 조선어문학회는 동인지 제7호를 《朝

5) 金允經, 위의 책, 567~614쪽.

朴炳采, 위의 글, 455~459쪽.

趙東杰, 〈1930·1940년대의 國學과 民族主義〉(《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166~167쪽.

鮮語文》으로 개칭하였으나, 종간호가 되고 말았다. 비록 2년밖에 지속되지 못하였으나, 조선어문학회는 당시 최고학부 출신 국어연구자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학풍을 조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그 관여자들은 1934년에 창립되는 진단학회에 참여하여 연구활동을 계속하였다.<sup>6)</sup>

1934년 5월 7일 ‘朝鮮 及 隣近文化의 연구’(회칙 2조)를 목적으로 한 진단학회가 창립되었다. 언어·문학·역사 등 한국문화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국학연구단체로 출발된 진단학회에는 발기인으로 김윤경·이윤재·이희승·최현배 등의 국어연구자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기관지인 《震檀學報》에 수록된 국어학 관계 논문은 전체 77편(1~14집, 1934~1941) 가운데 4편에 지나지 않았다. 국사학 논문이 39편이고, 국문학이 10편인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진단학회가 주로 국사와 국문학 관계자들의 주도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승녕이 〈·音攷〉 등 3편을, 梁柱東이 鄉歌 주석에 관하여 1편을 발표하였을 뿐이었다.<sup>7)</sup>

조선음성학회는 1935년 4월 24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이희승·이극로·鄭寅燮·金壽琪 등의 주도로 20여 명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국제 학계와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음성학 연구단체였다.<sup>8)</sup> 金尙鎔·異河潤·정인섭이 간사로 활동하였다. 이 단체는 실제 국제 학계에 한국어를 소개하였으며, 국어교육을 위한 음반제작도 한 바 있다. 즉 1935년 7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음성학회 제2차 대회에 김선기가 참석하여 〈조선어음의 만국음성부호 표기〉와 〈실험음성학으로 본 조선어의 악센트〉를 보고하였으며, 1936년 8월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언어학회에 정인섭이 참가하여 〈조선어문과 구미 어문과의 비교〉를 발표한 바 있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정확한 발음과 독법을 위한 음반 12매를 1935년 12월 OK축음기주식회사에서 제작하여 보급시켰다.<sup>9)</sup> 그러나 조선음성학회는 발족 직후 국제 학계에

6) 朴炳采, 위의 글, 453~455쪽.

趙東杰, 위의 글, 165~166쪽.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一志社, 1984), 23~26쪽.

7) 《震檀學會六十年誌》(震檀學會, 1994) 참조.

8) 《朝鮮日報》, 1935년 4월 26일.

9) 金允經, 앞의 책, 625~628쪽.



한국어를 소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연구 기관지조차 발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것은 회원의 대부분이 조선어학회에 관여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조선음성학회보다 조선어학회의 활동에 진력한 결과로 짐작된다.

## (2) 국어연구

일제 강점기의 국어연구는 국어체제의 통일에 목표를 두고, 철자법과 표준어,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등의 정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이러한 관심은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국어통일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국어학 전반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1910년 이후 1945년까지 국어연구자들이 발표한 논저·논설은 철자·문자·어휘 등 언어문자의 통일·정리와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문법에 관한 저술은 30여 권이 넘었고, 국어 관계 논문과 논설은 1,100편에 달하였다.<sup>10)</sup> 이는 국어의 연구가 체계화되고 있었으며, 특히 문법의 정리에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제는 합병 직후 국어연구기관이었던 國文研究所를 폐쇄하여 한국어를 공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봉쇄하였기 때문에, 국어연구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자로는 주시경과 그의 문하에서 직접·간접으로 배출된 金料奉·李奎榮·김윤경·최현배·이윤재·정열모·鄭寅承·권덕규·이병기·白南奎·신명균·장지영 등과, 계열을 달리 하지만 安 廓·박승빈 등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국어학 관련 주요 저서는 다음 것들이 있다.

周時經, 《말의 소리》, 新文館, 1914.

金料奉, 《조선말본》, 新文館, 1916 ; 《김터 조선말본》, 上海 : 세글집, 1922.

安 廓, 《朝鮮文法》, 滙東書館, 1917.

李奎榮, 《現今朝鮮文典》, 新文館, 1920.

權惠奎, 《朝鮮語文經緯》, 廣文社, 1923.

朴炳采, 앞의 글, 462~463쪽.

《朝鮮日報》, 1935년 9월 24일.

10) 朴炳采, 위의 글, 477~479쪽.

- 李奎昉, 《新撰朝鮮語法》, 以文堂, 1923.  
 李常春, 《朝鮮語文法》, 開城嶺南書館, 1925.  
 崔鉉培, 《우리말본》, 延禧專門學校 出版部, 1929・1937.  
 張志暎, 《朝鮮語綴字法講座》, 活文社, 1930.  
 姜 邁, 《精選朝鮮語文法》, 博文書館, 1932.  
 申明均, 《朝鮮語文法》, 常識普及會, 1933.  
 朴勝彬, 《朝鮮語學》, 朝鮮語學研究會, 1935.  
 金允經, 《朝鮮文字及語學史》, 朝鮮記念圖書出版館, 1938.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1942.  
 崔鉉培, 《한글갈》, 正音社, 1942.

그러나 이들 저술의 상당수가 문법에 관한 것이었고, 그 대개가 학교 교과서로 학문적 업적과는 거리가 있었다. 문법서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1910년 주시경이 발간한 《국어문법》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최현배의 《우리말본》이 있다. 특히 1,200쪽의 분량인 《우리말본》은 부피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전의 문법서들이 분석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말본》은 종합적으로 풀이하고, 현대언어학적인 이론의 토대 위에서 품사분류의 방법과 음성학을 포함시켰다. 또한 그 내용도 소리갈(음성학)·씨갈(詞論)·월갈(문장론)로 구성되어 실용적인 측면이 크게 강조되었다. 한편 문법연구는 대체로 言文修理, 곧 국어·국문의 정리를 위한 이론적 근거의 확립과 그 응용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론이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으로 실천화되었다. 이렇듯 국어학자들은 품사론 중심의 규범문법 체계를 세우고, 국어의 형태구조 규명에 주목하였던 것이다.<sup>11)</sup>

국어의 역사적 연구로는 김윤경의 《朝鮮文字及語學史》와 최현배의 《한글갈》이 두드러진다. 두 책 모두 800쪽이 넘는 大著로, 訓民正音의 원리와 변천을 추적하였다. 《조선문자급어학사》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로부터 시작하여 훈민정음을 정리하고,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의 국어연구를 개괄하였다. 특히 김윤경은 비록 실재 여부가 의심스러우나 많은 문헌에서 고대에

11) 문법연구의 전반에 대해서는 고영근, 〈한국어문법연구 1세기〉(《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1)을 참고할 것.

문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오늘날 전하지 않는 것들을 제시하였으며, 국어학사에 관련된 자료집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한글갈》은 역사편에서 훈민정음의 창제와 발전을 다루고, 이론편에서는 훈민정음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를 하였다. 김윤경이 학설의 소개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최현배는 그 비판에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梁柱東의 《朝鮮古歌研究》는 鄉歌를 해독한 연구서로, 오쿠라 싱페이(小倉進平)가 1929년에 발표한 《鄉歌及び吏讀の研究》(京城帝國大學)에 자극을 받아 이룬 업적이었다. 1,000쪽에 가까운 이 저술은 借字로 향가를 해석하면서 문학적인 역량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는 중세국어의 어법으로 향가의 해독을 시도하였는데,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고 치밀한 고증으로 향가 25수를 모두 해독하였던 것이다.<sup>12)</sup>

1920년대 국어연구는 훈민정음의 연원을 캐는 연구가 많았으며, 1930년대에는 철자법 논쟁이 주류를 이루며 고어 해석과 어원연구 등 국어사적 연구도 병행되었다. 1940년대에는 국어사와 국어학사의 연구에 편중된 현상을 보였는데, 1940년 《訓民正音解例本》의 발견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1930년대부터 이승녕·柳應浩·김선기 등에 의하여 서구의 언어이론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국어연구에 기여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국어연구는 1930년대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내었는데, 연구자도 증가하였지만 1920년대부터 발간된 잡지에 발표되던 국어 관련 논문들이 1930년대에 이르러 학회의 기관지를 통하여 더욱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3)</sup>

## 2) 국어운동의 전개

일제 강점기의 국학운동은 사실상 민족운동이었고, 국어연구자들과 연구기관들은 국어·국문의 연구와 보급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어는 민족문화의 핵심이었으므로 국어운동의 영향은 널리 미쳤으며, 동시에 일제에 의한 탄압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sup>14)</sup>

12) 《우리 말본》·《조선문자국어학사》·《한글갈》·《조선고가연구》에 대해서는 《한글》 190(1985) 특집을 참조.

13) 金敏洙, 《新國語學史》(一潮閣, 1981), 249~254쪽.

일제 강점하에 있어서 국어운동은 조선어학회가 주도한 한글 맞춤법 제정·표준어 사정·외래어 표기법 제정과 한글날 제정·사전편찬·문자보급 등 여러 형태로 드러났으며, 연구 발표회·강연회·강습회와 함께 신문·잡지와 연계된 농촌계몽운동 등을 통해 문자보급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훈민정음 반포 기념식에서 비롯된 가갸날·한글날의 제정은 본격적인 국어운동의 출발이었다. 즉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주년) 기념식이 국어학자들과 잡지사인 新民社의 공동 주최로 食道園에서 성대히 거행되고, 이 날을 가갸날이라 하여 매년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928년부터는 한글날이라 명칭을 바꾸었고, 1932년에는 양력 10월 29일을 기념일로 삼았다가, 1934년부터 양력 10월 28일을 한글날로 기념하였다.<sup>15)</sup>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이에 적극 동조하였고, 국어에 관한 연구나 질의를 연재하여 일반의 각성을 촉진하였다.

사전 편찬도 준비되었다.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은 1911년 崔南善이 경영하던 朝鮮光文會에서 주시경·김두봉·권덕규·이규영 등이 착수하였던 ‘말모이’(辭典)에서 시작되었으나 주시경의 서거와 김두봉의 중국 망명 등으로 마무리짓지 못하였다. 그 후 1927년 박승빈이 주도하던 啓明俱樂部에서 일부 남아 있던 ‘말모이’의 원고를 넘겨받아 다시 林圭 등이 사전 편찬을 시도하였지만 기초작업의 不備와 재정 관계로 중단되고 말았다. 또 중국에 망명한 김두봉도 사전원고를 작성한 바 있어 이윤재가 그 원고를 국내로 옮겨오곤 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4) 국어운동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金允經, 앞의 책, 545~673쪽.

한글학회, 앞의 책.

李萬烈, 〈日帝下の 文化運動〉(《韓國現代史의 諸問題》II, 乙酉文化社, 1987).

이현희, 〈어문연구와 문자보급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9, 국사편찬위원회, 1991).

15) 가갸날이 음력 9월 29일이 된 것은 훈민정음의 반포가 세종 28년(1446년) 9월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마지막 날로 정한 것이었다. 그것을 양력으로 고쳐 10월 29일로 하였다가, 다시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한 것이 10월 28일이었다. 한글날이 10월 9일로 정해진 것은 1940년 《訓民正音解例本》이 발견되어 그 반포가 9월 ‘上澣’이었음이 확인되어 상순의 끝 날인 1446년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결과이다(한글학회, 위의 책, 6~8쪽).

국어운동이 본격화되면서, 1929년 한글날(10월 31일) 기념식을 마치고 각계 유지 108명의 발기로 《조선어사전》 편찬회가 조직되었다. 편찬회에서는 신명균·이극로·이윤재·李重華·최현배를 집행위원으로 선임하고, 조선어학회 회원과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분담·집필하도록 하였다. 한국인이 만든 한국어 사전이 없음을 한탄한 이들은 서양선교사들이나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사전이 있기는 하나, 그것들은 “언어와 문자에는 아무 합리적 통일이 서지 못한 사전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전 편찬의 취지와 사명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류의 행복은 문화의 향상을 따라 증진되는 것이요, 문화의 발전은 언어 및 문자의 합리적 정리와 통일을 말미암아 促成되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어문의 정리와 통일은 제반 문화의 기초를 이루며, 또 인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 금일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할 捷路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축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실현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 본디 사전의 직분이 중대하니 만큼, 이의 편찬사업도 그리 용이하지 못하다. 1일이나 1월의 짧은 시일로도 될 수 없는 사업이요, 1인이나 2인의 단독한 능력으로도 도저히 성취할 바가 아니므로, 본회는 인물을 전 민족적으로 망라하고 과거 선배의 업적을 계승하여 혹은 동인의 사업을 인계도 하여 엄정한 과학적 방법으로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여서 민족적으로 권위있는 사전을 편성하기로 自期하는 바인즉, 모름지기 江湖의 동지들은 민족적 백년대계에 협력함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金允經, 《朝鮮文字及語學史》, 548~550쪽; 한글학회, 《한글학회 50년사》, 263~265쪽).

이 취지서는 사전 편찬이 단순한 국어운동이 아니라, 조선 민족 갱생운동의 일환이며 전 민족적 문화역량을 동원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사전 편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전 편찬사업은 재정문제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마침 李祐植 등이 소요경비 1만 원을 기부하자, 편찬회는 1936년 3월 19일 그 사업을 조선어학회에 넘기고 해산하였다. 이에 조선어학회는 사전 편찬사업을 전담하여 4월 1일부터 편찬 전임집필위원으로 이극로·이윤재·정인승·韓澄·이중화를 선임하고 작업을 추진하였다. 사전편찬은 1939년 연말에 원고가 완성된 전체

의 1/3 분량을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출원하여 1940년 3월 삭제와 정정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1942년 봄부터 사전의 조판이 시작되었고, 가을에는 교정지도 200여 쪽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사전편찬 작업은 1942년 10월에 일어난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과는 별도로 이보다 일찍, 1938년 7월 배재고등보통학교 교원인 文世榮이 朝鮮語辭典刊行會의 명의로 《朝鮮語辭典》을 간행하였다. 문세영은 조선어사전 편찬회의 발기인이기도 하였는데, 1932년경부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朝鮮語辭典》을 대본으로 하고 조선어학회의 이윤재·한 정 등의 지도를 받아 사전을 완성한 것이었다. 이 사전은 1,700쪽이 넘는 분량으로, 한국인의 손으로 된 최초의 한국어사전이었다.<sup>16)</sup>

국어운동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어보급운동이었다. 특히 신문사 주최의 문자보급운동이 1930년부터 4년간 계속되었다. 《조선일보》가 1930년에 시작한 이 운동에 《동아일보》도 그 다음 해에 ‘브·나로드(V. Narod)’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였다. 《동아일보》의 경우, 가장 규모가 컸던 1932년에는 강습대원 2,724명, 강습지 592개 지역, 수강생 4만 1,153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개최된 이 강습회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1934년에는 만주와 일본에서도 있었다. 동아일보사의 경우, 4년간 298일 동안 강습회를 가졌으며, 강습대원이 연 5,751명, 강습지가 1,320개 지역으로 수강생이 총 10만 명에 이르렀다. 교재도 총 210만 부가 배포되었다.<sup>17)</sup>

이러한 신문사의 문자보급운동에 대하여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공부》(동아일보사 학생계몽대, 3주간용)나 《한글원본》(조선일보사 문자보급반, 4주간용)과 같은 교재를 편찬하였고, 또 기독교회의 하기 아동 성경학교용 《초등반 교과서》(1개월용)도 편찬하였다.

조선어학회에서도 국어보급을 위하여 지방을 순회하며 강습회나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매년 30~40곳에 수천 명이 강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대중에게 국어의 과학적 가치와 신 철자법 및 문법적 기초지

16) 《朝鮮日報》, 1938년 7월 12·20일.

한글학회, 위의 책, 262쪽.

17) 한글학회, 위의 책, 320~322쪽.

식을 이해시켰던 것이다. 1931년에서 1933년까지 지방순회에 참여한 국어학자로는 이병기·권덕규·이상춘·이윤재·김윤경·신명균·이극로·최현배·김선기·장지영·이희승·李 鉉·李萬珪·金炳濟·李康來 등을 들 수 있다.<sup>18)</sup>

철자법의 통일에 대해서는 이미 국어학계 전반에서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에서도 그 준비에 나선 바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조선어학회에서는 1930년 12월 13일 총회에서 통일된 ‘한글맞춤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12인의 제정위원들은 그 이듬해 7월 9일까지 초고 61항목을 다듬었으며, 1932년 12월까지 91항목의 초안을 작성하여 토의를 계속하였다. 즉 1933년 10월 29일 한글날에 발표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만 3년 동안 연인원 1,500명이 참여하여 14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총 428시간을 소요한 뒤에 성안되었던 것이다.<sup>19)</sup>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발표되자 《조선일보》·《동아일보》·《조선중앙일보》 등 신문은 통일안대로 맞춤법을 채용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출판계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新東亞》·《新家庭》·《中央》·《朝光》·《女性》 등 주요 잡지와 단행본들도 새 맞춤법을 따랐다. 인쇄업자들도 이러한 흐름에서 새 철자법의 활자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漢城圖書株式會社·大東印刷株式會社·基督教 彰文社·朝鮮印刷株式會社 등 널리 알려진 인쇄소들이 새 철자법에 따른 활자를 준비하였고,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는 새 철자법을 다루지 않은 인쇄물은 사절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새 맞춤법 보급을 위해 조선어학회에서는 1935년 10월에 ‘한글맞춤법통일안 보급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펴는 한편, 聖書公會와 대한예수회장로교 총회 등 기독교계에 대하여 성경과 찬송가를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개정할 것도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sup>20)</sup>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일반 문화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였다.<sup>21)</sup>

18) 한글학회, 위의 책, 313~315쪽.

19) 한글학회, 위의 책, 152~171쪽.

20) 朴勝彬이 주도한 조선어학연구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책들이 상세하다.

金允經, 앞의 책, 573~614쪽 및 한글학회, 위의 책, 179~189쪽.

21) 金允經, 위의 책, 567~569쪽.

맞춤법을 정리한 조선어학회는 국어의 표준어를 사정하고 외래어 표기법도 제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사전편찬을 위한 전제작업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즉 조선어학회에서는 1934년 7·8월경에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간에 걸쳐 어휘 9,547어 중에서 6,231어의 표준어를 선정하고, 1936년 10월 28일 한글날에 발표하였다.<sup>22)</sup> 아울러 조선어학회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연구도 1930년 12월 《한글마춤법통일안》 제정 작업과 같이 시작, 국내외 학술단체와 학자들의 협조를 받아 1938년 가을에 그 원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원안은 2년간의 시험과 보완을 거쳐 1940년 6월 25일에 확정하였다. 외래어 표기법 제정은 정인섭·이극로·이희승이 책임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조선어학회에서는 1941년 1월 15일에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이란 책자를 간행하고, 그 계몽과 보급에 노력하였다.<sup>23)</sup>

그밖에 1934년 10월에 한글날 기념사업으로 이루어진 제1회 조선어학도서 전람회가 국어운동과 관련지어 특기할만하다. 이 전람회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普成專門學校에서 개최되어 1,085명이 관람하였다. 正音類 11점, 諺解類 121점, 譯語類 9점, 字書類 30점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조선어에 관한 저서 27점 등 총 540점이 전시되어, 일반에게 국어학에 관한 큰 자극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sup>24)</sup>

일제 강점하에 있어 국어운동은 국어의 학문적 연구와 함께 국어의 계몽 및 보급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국어연구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아래에서 국어를 보존하고 그것을 통일화·세계화하여 국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맹퇴치를 이루는 사회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맞춤법의 통일과 표준어 제정·보급은 언어의 통일과 일체화를 통한 근대사회 형성에도 크게 공헌하였다.<sup>25)</sup>

한글학회, 위의 책, 171~178쪽.

22) 한글학회, 위의 책, 194~216쪽.

조선어학회,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36.

23) 한글학회, 위의 책, 217~241쪽.

朝鮮語學會, 《外來語表記法統一案》, 1941.

24) 金允經, 앞의 책, 614~621쪽.

《한글》 3-1, 1935.

朝鮮語學會, 《朝鮮語學 圖書展覽會 出品目錄: 古書之部》, 1934.



## 3) 조선어학회사건

일제 강점하에 있어서 국어운동은 민족의 말과 글을 수호하고자 하는 민족운동이었다. 일제는 문화적으로 內鮮一體를 내세운 동화정책을 펴나가면서, 사실상 민족말살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족문화와 민족정신을 수호하고자 한 국어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예상된 일이기도 하였다.

이미 일제는 정책적으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수를 축소시키다가, 1938년부터는 아예 한국어 과목을 폐지하였다. 학교와 재판소 등 공공기관에서의 한국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1940년부터는 創氏改名을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1940년 8월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같은 국문신문을 폐간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1936년 12월에는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을 제정하여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등 반일세력을 ‘要觀察人’으로 감시하고, 1937년에 수양동우회와 흥업구락부의 회원들을 검거하는 등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1940년에는 〈사상범예비구금령〉을 발령하여, 언제든지 반일세력을 구금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탄압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제가 한국에 있어서의 군국주의적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선어학회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국내에 민족주의적 색채를 지닌 단체를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일으킨 것이었다. 조선어학회가 맞춤법과 표준어·외래어 표기법 등을 정리하고 사전의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던 1942년 8월에 발단된 이 사건은 일제 강점기 말기의 대표적 민족운동 탄압 사건이었다. 즉 간접적인 민족운동으로 간주되고 있던 국어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었던 것이다.

조선어학회사건은 1942년 여름방학을 맞은 함흥 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 여학생들이 기차로 귀향하는 도중에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문초를 하다가, 홍원이 고향인 박영희라는 여학생의 집을 수색하여 일기

25) 李萬烈, 앞의 글, 422쪽.

장을 압수한 일에서 발단되었다. 일본어를 사용하였다고 꾸지람을 들었다는 한 구절을 일제는 대항사건으로 만들어서, 먼저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사로 있다가 사전 편찬에 참여한 鄭泰鎭을 9월 5일 체포하였다.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단정하고 10월 1일 이운재·한 정·이극로·정인승·이중화·김윤경·李錫麟·최현배·權承昱·이희승·장지영 등 조선어학회의 주도 회원 11명을 체포하고, 사전원고와 회계장부·회의록·후원자 명부 등을 압수하여 흥원경찰서로 압송하였다. 이어 李祐植·金法麟·鄭烈模·이병기·李萬珪·이강래·김선기가 검거되었으며, 12월에는 徐承孝·安在鴻·李仁·金良洙·張鉉植·정인섭·尹炳浩·李殷相이, 1943년 3월에는 金度演·徐珉濤가 검거되었다. 권덕규와 安浩相은 신병으로 체포를 면하였다. 이처럼 구속이 29명이었고, 불구속이 申允局과 金鍾哲, 그리고 권덕규·안호상으로 조선어학회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33명이었다. 또 증인으로 불리어 취조를 받은 인물도 48명에 이르렀다.

구속자의 대부분은 흥원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았는데, 경찰은 이들에게 갖은 고문을 가하여 억지 자백을 강요하였다. 이운재와 한 정은 고문 끝에 옥사하고 말았다. 경찰은 조선어학회의 모든 사업, 즉 사전 편찬사업·철자법 통일안·외래어 표기법·순회강습회·훈민정음 반포기념식·고전 출판 등이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았고, 검사는 1943년 9월에 관련자 중 12인을 기소유예로 석방하고, 이극로·이운재·최현배·이희승·정인승·정태진·김양수·김도연·이우식·이중화·김법린·이인·한정·정열모·장지영·장현식의 16명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예심에 회부되었다. 그 가운데 이운재와 한 정은 옥사하였고, 장지영과 정열모는 1944년 9월에 공소 소멸로 석방되었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하여 1944년 12월 21일부터 1945년 1월 16일까지 9회의 공판이 함흥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이극로 징역 6년, 최현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2년 6개월, 정인승·정태진 징역 2년이었고, 나머지 7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 가운데 정태진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하여 1945년 7월 1일에 출옥하였다. 나머지 4명은 1945년 1월 18일 상고하였으나, 8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이들은 8월 17일 함흥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sup>26)</sup>

이들이 공판에 회부된 이유서를 보면, 일제가 조선어학회와 국어운동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 본 건 조선어학회는 1919년 萬歲騷擾事件의 실례에 비추어, 조선의 독립을 장래에 기약하는 데는 문화운동에 의하여 민족정신의 환기와 실력양성을 급무로 삼아서 … 1931년 이래로 피고인 이극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운동 중 그 기초적 중심이 되는 위에서 말한 바 어문운동의 방법을 취하여, 그 이념으로써 지도이념을 삼아, 겉으로 문화운동의 가면을 쓰고, 조선독립을 목적인 실력배양단체로서 본 건이 검거되기까지 10여 년이나 오랜 동안, 조선 민족에 대하여 조선어문운동을 전개하여 온 것이니 … 조선어학회는 이같이 민족주의 진영에 단연 不拔의 지위를 차지하여, 조선 사상계를 풍미한 공산주의운동 앞에 다 潛伏하여, 아무 한 바 없이 혹은 자연 소멸하고 혹은 사고 단체로 타락하여 겨우 그 餘喘을 보존하여 오던 민족주의 단체의 사이에 있어서 홀로 민족주의의 아성을 사수한 자로서 중시됨에 이르러, 후단 기재의 사업 같은 것은 어느 것이든지 연문신문들의 열의 있는 지지 밑에 조선인 사회에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중 조선어사전의 편찬사업 같은 것은 曠古의 민족적 대사업으로 촉망되었던 것이다(한글학회, 《한글학회 50년사》, 17~18쪽).

바로 일제가 국어운동을 독립을 위한 실력배양운동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조선어학회가 그 중심에서 민족주의의 아성을 사수한 것으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실질적으로 해산되었고, 준비중이던 사전 편찬 원고는 증거물로 홍원과 함흥으로 옮겨다니다가 해방 직후 서울역 운송부창고에서 발견되었다. 결국 조선어학회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에 광분하던 일제의 민족문화운동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민족의 모국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崔起榮〉

26) 조선어학회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당사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 金允經, 〈朝鮮語學會受難記〉(《한글》 11-1, 1946).

——,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앞의 책), 670~673쪽.

李熙昇, 〈朝鮮語學會事件〉(《一石李熙昇全集》 2, 서울대 출판부, 2000).

정인승, 〈조선어학회사건〉(《건재 정인승전집》 6, 박이정, 1997).

## 2. 국문학

일제 강점기에 있어 국문학 연구 역시 국어학이나 국사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민족문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문학 연구는 국어학과는 달리 1910년대까지 별다른 업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물론 1900년대에 신소설과 신체시가 등장하였고, 1917년에는 李光洙가 《無情》을 발표하는 등, 전통시기와는 다른 양태의 문학작품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국문학 연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1910년대 후반부터 국문학에 관심을 보인 인물은 安 廓이었고, 그는 1922년 한국 최초의 국문학사로 평가되는 《朝鮮文學史》를 발간하였다. 또 鄭寅普나 文一平·申采浩 같이 역사가로도 알려진 국학자들도 국문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1924년 京城帝國大學이 창설되어 1926년부터 학부가 운영되면서 국문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등장하여 1930년대에 주로 업적을 내놓았다. 안 화 등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문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면,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趙潤濟·金台俊 등은 실증적인 방법론이 학문적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흔히 이들을 國學派와 實證學派로 구분하여 비교하기도 한다.

또한 고전문학 관련 자료의 간행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신시·신소설 등 근대문학에 대한 평가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문학평론·비평적인 형태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다만 소설가로 이름 높던 金東仁이 〈朝鮮近代小說考〉와 〈春園研究〉를 발표하였으며,<sup>1)</sup> 좌익 평론가로 널리 알려졌던 林 和가 신문학 초기의 정리에 진력하여 〈新文學史〉를 내놓았다.<sup>2)</sup>

1) 金東仁, 《金東仁全集》6(三中堂, 1976). 〈朝鮮近代小說考〉는 《朝鮮日報》1929년 7·8월에 연재되었으며, 〈春園研究〉는 《三千里》와 《三千里文學》에 1934년부터 1935년, 그리고 1938년에 14회 연재되었다. 김동인에 관해서는 金允植, 《金東仁研究》(民音社, 1987) 참조.

2) 林 和의 신문학사 연구는 〈概說 新文學史〉·〈新文學史〉·〈續 新文學史〉란 제명으로 《朝鮮日報》에 1939년 9월부터 1940년 5월까지, 그리고 《人文評論》 1940년 11월부터 1941년 4월까지 연재된 바 있다. 그 전체는 임규찬·한진일 편,

사실 일제 강점기의 국문학연구가 고전문학에 집중되었던 것은 근대적 신문을 이해하는 준비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근대문학에 대한 논의는 소략하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근대문학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국문학 연구서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安 廓, 《朝鮮文學史》(韓一書店, 1922).

金台俊, 《朝鮮漢文學史》(朝鮮語文學會, 1931).

——, 《朝鮮小說史》(清進書館, 1933); 《增補 朝鮮小說史》(學藝社, 1939).

金在喆, 《朝鮮演劇史》(朝鮮語文學會, 1933); (學藝社, 1939).

趙潤濟, 《朝鮮詩歌史綱》(東光堂書店, 1937).

鄭魯湜, 《朝鮮唱劇史》(朝鮮日報社 出版部, 1940).

국문학 연구서는 대체로 1930년대에 발간되었으며, 문학사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소설·시 뿐만 아니라 연극·창극과 같은 장르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아무튼 이러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연구방법론을 도입한 최초의 체계적인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중시된다.

### 1) 국학파의 연구

1920·30년대에 활동한 민족주의적 관점의 국문학 연구자, 이른바 국학파로 논의되는 인물은 안 화·정인보·이병기·문일평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대개는 전문적인 국문학 연구자라기보다는 국학자로 이름 매겨진다. 실제 이들은 국사학 또는 국어학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신채호 같은 이도 국문학에 있어 국학파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학파의 국문학 연구는 실학적인 전통의 영향으로 고증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에 관련된 근대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문학연구에 있어 순수학문적인 경향보다도 계몽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공통점을 지니고

---

《林和 新文學史》(한길사, 1993)에 정리되었다. 임화에 대해서는 金允植, 《林和研究》(문학사상사, 1989) 참조.

있었다.

1920년대의 국문학 연구는 안 확이 대표하였다.<sup>3)</sup> 그는 이미 1915년 7월 일본 유학생 잡지인 《學之光》 제6호에 〈朝鮮의 文學〉을 발표하였으며, 1921년에는 《我聲》에 두 차례에 걸쳐 〈朝鮮文學史〉를 싣고, 1922년에 이르러 《朝鮮文學史》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따라서 안 확은 최초로 통사적인 체계를 갖추어 근대적인 국문학 연구의 출발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자신도 서문에서 전통시기에는 명문을 모으거나 평한 정도의 저술이 있을 뿐 문학사가 완전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저술에 대한 자긍심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조선문학사》에서 안 확은 한국문학의 출발에 앞서 단군시대의 사상으로 ‘倮’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그가 大倮敎의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문학을 이해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문학사》의 附編으로 〈朝鮮人の 民族性〉과 〈朝鮮語原論〉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 관점과 방향이 어느 정도 짐작된다. 더욱이 그는 《조선문학사》의 저술동기를 그의 다른 저서 《自覺論》의 서문을 대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sup>4)</sup> 바꾸어 말하면 안 확에게 있어 문학은 그 자체에 관심이 있던 것만은 아니었고, 민족의 자각운동을 위한 전제였다고 하겠다. 또 그는 한국문학을 上古(소본립시대) · 中古(대본립시대) · 近古(귀족시대) · 近世(독재정치시대) · 最近으로 시대구분을 하였는데, 이는 그가 한국정치사를 서술한 《朝鮮文明史》(滙東書館, 1923)의 시대구분과 다르지 않았다. 한국사의 문학과 정치를 동일한 관점에서 시대구분하였다는 사실은 문학사를 일반사의 종속개념으로 보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sup>5)</sup> 물론 그 자신은 “문학은 敏活靈妙하게 심적 현상의 전부를 표명함으로써

3) 안 확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이 참고된다.

崔元識, 〈安自山の 國學〉(《民族文學의 論理》, 창작과비평사, 1982).

李泰鎭, 〈安廓의 生涯와 國學世界〉(《歷史와 人間의 對應》, 한울, 1985).

李基文, 〈安自山の 國語研究〉(《周時經學報》 2, 1988).

柳浚弼, 〈自山 安廓의 國學思想과 文學史觀〉(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또한 안 확의 저술과 그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自山安廓國學論著集》 1~6 (驪江出版社, 1994)에 수록되어 있어 참고된다.

4) 安 廓, 《朝鮮文學史》(韓一書店, 1922), 134~135쪽.

5) 송희복, 《韓國文學史論研究》(文藝出版社, 1995), 49쪽.

其國民의 진정한 발달 변천을 알게” 하고, “문학사는 일반 역사 더욱 人文史의 중요되는 일부로 볼뿐 아니라 翻하여 諸種의 역사를 다 해명한 것”으로 언급하였다.<sup>6)</sup> 문학의 연구가 국민의 심적 현상 곧 국민사상을 이해하는 첩경이라는 관점이었다.

안 환은 《조선문학사》에서 국문으로 쓰여진 문학과 한문학을 함께 포괄하고 구비문학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문학의 기원에서 당대의 문학까지 취급하고 있었다. 또 사실의 열거에 머무르지 않고, 상고시대에 형성된 민족정신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모되어 외래사상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sup>7)</sup> 즉 그는 문학을 논의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종교·사상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곧 侏·불교·유교 등 사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러한 종교와 사상이 어떻게 당시 사회에 수용되고 적응되어 토착화하였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한자와 불교의 수입을 논의하면서 그것을 고유사상과 외래사상의 접합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고의 문학을 개괄하여 말하면 창조시대라 후세의 문학은 此 시대에서 本하니라. 한자를 수입함은 심미적 사상이 발달하여 기술적 정신이 進하매 그 문학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경 한자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中原의 제도·문물과 유교사상을 수입하게 된 것은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발달하여 사회와 인생을 적극적으로 교화케 함에서 出한 것이오 결코 정책상이나 卑屈의 사상으로 出한 것은 안이나라. 그런데 조선 고유한 정신이 중원의 사상을 수입함에 대하여 하등 逆論이 업시 순조로써 영접하게 된 것은 彼の 사상(天子가 天의 命을 作하여 국가를 治한다는 것)이 고유사상 즉 祭天의 정신과 祖先崇拜의 관념에 대하여 彼此 모순이 되지 안함에서 境緣된 것이니라(安 廓, 《朝鮮文學史》, 41쪽).

사실 그는 1915년에 발표한 〈조선의 문학〉에서 한문학의 폐해를 강조하고, 고유문학과 신성한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sup>8)</sup> 한문학이 중국문학을 따르지 않고 순전한 조선적 한문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6) 安 廓, 앞의 책, 2쪽.

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지식산업사, 1993), 252쪽.

8) 安 廓, 〈朝鮮의 文學〉(《學之光》 6, 1915), 72쪽.

었다.<sup>9)</sup> 따라서 국문학의 범위에 한문학을 원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한문학을 제외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점은 국학과나 실증학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학과 학자들은 국문학에 있어 文弱의 전통에 대하여 크게 비판하고 있었다. 이미 한말에 朴殷植은 〈文弱之弊는 必喪其國〉이라고 하여, “自國의 권리를 全失하여 타인의 노예가 된 것은 由來虛文을 徒尙하고 武事を 천시하여 虛弱之國을 馴致한 결과”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sup>10)</sup> 안 확도 “兩班子弟는 依例保有的 문자로 병역을 면제하고 兼하여 虛文褥禮로 인민을 속박하니 오천년 來의 文弱의 風은 慘不忍言이라”고 하며, 그 자신이 “儒教征伐에 선봉을 擧하노니 一齊奮起하여 漢文桎梏을 타파하고 고유의 문학과 신성의 정신을 발휘하자”고 강조하였다.<sup>11)</sup> 문일평이 ‘戰爭文學’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안 확은 《조선문학사》에서 당시의 문학에 대해서도 청년계의 자각이나 내실이 없는 허영으로 파악하고 文弱하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이것은 국학과와 문학관이 순수학문적인 관점과는 달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일반 청년계에는 소설 及 詩의 관념이 큰 유행이 되니 이것이 文弱의 風이라. 百段事爲의 준비가 완성치 안코 오직 文藝熱만 팽창하면 건전한 문학이 생기 안코 浮薄墮落의 情態가 生할 뿐이니 文學亡國論은 실상 今日社會에 對照할 가 하노라( 安 廓, 《朝鮮文學史》, 132쪽).

안 확은 국문학의 전개과정을 고유사상과 외래사상의 접합을 통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즉 상고문학은 倥의 관념을 제시하고, 중고문학은 외래의 불교사상과 중국사상이 새롭게 風流를 형성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근고문학과 근세문학, 즉 고려와 조선은 불교와 유교가 큰 영향을 미쳤으나, 형식주의의 풍조에 치우치면서 고유정신은 殘命의 위기를 맞았고, 최

9) 安 廓, 위의 글, 69쪽.

10) 朴殷植, 〈文弱之弊는 必喪其國〉(《西友》 10, 1907), 6쪽.

11) 安 廓, 앞의 글, 72쪽.

12) 文一平, 〈戰爭文學〉(《湖岩全集》 2,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근문학은 서양문물과 접합하였으나 신구문학의 대립을 거쳐 문화운동이 혼란하여졌다고 지적하였다.<sup>13)</sup> 주목할 것은 역시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한 그의 평가이다. 안 확은 훈민정음의 창제를 국가적 관념과 문학적 관념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국민적 종교심과 평등적 일치심을 각성함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sup>14)</sup> 그러나 유교가 발전하면서, ‘絶代珍寶’인 언문 대신에 한자를 전용하여 자국의 고유정신은 소멸하고 중국 모방에만 급급하였음을 비판하였다.<sup>15)</sup> 안 확의 이러한 관점은 문학을 문학으로보다, 사상과 역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안 확의 《조선문학사》는 최초의 국문학사이고 그 다루는 대상의 범위도 넓었으나, 상고문학의 자료나 원문의 인용, 사실의 미확인 등 실증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그만큼 안 확의 문학사는 박식한 반면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된다.<sup>16)</sup>

국학과로 분류되는 정인보는 〈朝鮮文學源流草本〉(《延禧專門學校文科論文集》 1, 1930)에서 국문학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 前人의 述作이 吏讀나 正音을 쓴 이외에 대개 漢土의 문자로서 그대로 구사한 것이므로 순수한 조선문의 영역이 잘못되게 협소한 듯하나 조선의 芬香이 없이 오직 한토의 氣臭를 함유한 작품은 애초에 말할 것이 아니요, 어떠한 馬을 탔던지 동서남북에 내 맘대로 馳騁하였다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과거의 驪黃을 물어 무엇하리오(鄭寅普, 〈朝鮮文學源流草本〉, 《薺園鄭寅普全集》 1, 延世大出版部, 1983, 261쪽).

즉 그는 한국적인 분위기를 보인 한문학은 국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吏讀를 제외하고는 한문으로 되었던 삼국시대의 문학작품을 소개하며 평하였는데, 특기할 것은 각기 碑記를 포함시켜 廣開土王陵碑나 眞興王巡狩碑를 소개하고 내용을 살피고 있다는 점이다. 광개토왕릉비는 ‘辛卯年’조를 설명하면서 사실의 모순과 문리의 乖戾를 지적하였다.<sup>17)</sup>

13) 송희복, 앞의 책, 47쪽.

14) 안 廓, 앞의 책, 78~81쪽.

15) 안 廓, 위의 책, 113쪽.

16) 송희복, 앞의 책, 49쪽.

또 진흥왕순수비를 평하며, “외래문화를 承用할지언정 그에 拵沒되지 아니함을 料度할 수 있으며 저에게 슬리지 아니하였을진대 그만한 自支와 內守 | 그 本이 있음을 미루어 想得할 수 있다”고 하여 외래문화의 슬기로운 수용을 찬양하고 있었다.<sup>18)</sup> 그 또한 넓은 의미에서 한문학을 국문학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정인보는 화랑도를 ‘신라사상의 순수한 凝聚’라고 지적하며, 별도의 ‘花郎道와 文學’이라는 소제목에서 논의하였다. 화랑도를 중시한 것은 결국 문학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로 알려진 문일평 역시 국문학에 관련된 글을 남기고 있다. 1930년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가 《湖岩全集》 제2권에 수록된 〈藝術과 로-맨스〉·〈史上에 나타난 藝術家の 群像〉(〈史上에 나타난 藝術의 聖職〉)·〈戰爭文學〉이 그것들이다. 앞의 두 연재는 문학뿐 아니라 미술·음악·서예 등의 예술가를 포함한 것이었고, 〈戰爭文學〉은 ‘阿旦戰과 小說’에서 언급한 〈溫達傳〉(〈三國史記〉)을 제외하면 모두 전쟁과 관련된 시를 소개하고 간단한 평을 달고 있었다. 전쟁과 관련된 시란 결국 문학에 있어 애국적인 감정을 강조한 것들이 아닐 수 없었다.

문일평은 “조선말의 생명을 담은 조선글의 발명으로 해서 진정한 조선문학의 수립을 가능하다”고 이해하였다.<sup>19)</sup> 그렇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자로 표기된 작품들에 대해서도 그는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리고 있었다. 〈史上에 나타난 藝術家の 群像〉은 반 이상이 문학에 관한 것으로 국문시가를 먼저 살폈지만, 대개가 한문으로 된 작품이 소재였다. 다만 그 첫 부분에 ‘女流藝術家麗玉’을 내세우고 黃眞(伊)와 許蘭雪軒을 논의한 것은 그의 여류문학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일평의 문학에 관련된 글은 학문적인 연구라기보다 섬세하고 박학한 전통적인 詩話風의 문학사적 감상의 수준을 넘은 것은 아니었다. 국학파의 특징이 博覽強記라는 점을 든다면, 문일평 또한 전문적인 문학론을 펼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배경에

17) 鄭寅普, 〈朝鮮文學源流草本〉(《舊園鄭寅普全集》 1, 延世大 出版部, 1983), 272~279쪽.

18) 鄭寅普, 위의 글, 296~297쪽.

19) 文一平, 〈史眼으로 본 朝鮮〉(《湖岩全集》 2), 16쪽.

서 계몽성이 짙은 문학의 소개였다고 할 것이다.

신채호는 《동아일보》 1924년 1월 1일자에 〈朝鮮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이라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吏讀에 관하여 설명하며 處容歌와 鄭瓜亭曲을 훈민정음 이전의 뚜렷한 문학작품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吏讀文으로 지은 處容本歌의 의의를 발견하며 史冊에 누락된 鄭瓜亭의 國詩를 按出함은 저자의 此篇부터 始라 할지니 혹 日後 조선문학사 編撰者의 채택이 될가 하노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국문학을 다음과 같이 개관하면서,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에도 한문학이 성행하여 국문학이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한탄하며, 鄭澈과 尹善道の 시조 몇 편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世宗大王의 正音字母은 吏讀에 比하면 그 音의 形이 完美할 뿐더러 그 학습이 더욱 편리하여 우리 문학의 發興할 利器를 주었스나 다만 漢文學의 正복을 바더 각종 글월을 모다 한문으로 記하고 한문만 문자로 알아 국문학 發達의 前路를 막었섯스며 元昊·鄭澈·尹善道 諸公이 간혹 時調의 명작이 잇스나 그러나 그 才力을 모다 漢詩의 저작에 팔아먹고 時調는 餘事로 作하얏슴으로 모다 작가로 稱하기 부족하며 소설은 諺文으로 著한 자가 만흐나 그러나 문학명사들은 此等の 언문소설을 著하지 안할 뿐 아니라 또한 讀하지도 안함으로 다만 無賴의 閑人이 이를 지며 冊肆의 상인이 이를 박아 閭巷의 農人에게나 閨中의 부인에게 팔아 幾分의 薄利를 어딴슬 뿐이라 그럼으로 發達이라 칭할 것이 업도다 일울터면 오백년래의 언문소설중 좀 나흔 作物을 춘향전·놀보전·토기전 등을 數하나 그러나 춘향전은 고구려의 韓珠를 演述한 것이오 놀보전은 신라의 房色을 演述한 것이오 토기전은 고구려의 龜兔談을 演述한 것이니 다 창작아님이 명백하며 만일 명문 絶작을 차즈면 한문작가에는 或 幾篇이 잇다 하런이와 언문에는 絶無하니 世宗大王의 제작한 恩德을 辜負함이 또한 심하도다 아흐(申采浩, 〈朝鮮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 《東亞日報》, 1924년 1월 1일).

물론 신채호의 설명과 평가가 고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국문으로 된 문학에 대한 애정과 절실한 요망은 ‘自家文學의 독립국’의 건설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와서 일반 조선문법의 학자들이 우리 글의 발달을 절규하나 그러나

각국 문학의 진보는 매우 다수한 작가가 나서 全 사회를 고무할만한 詩나 小說이나 劇本이나 기타 각종 문예작품이 만하 이로써 울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어 飢者의 糧이 되며 病者의 藥이 되야 自家文學의 독립국을 건설할만한 然後의 일이니 근일에 작가로 칠 작자가 몇치이나? 아호(申采浩, <朝鮮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 《東亞日報》, 1924년 1월 1일).

즉 신채호는 많은 작가가 국문으로 작품을 써서 민중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국문학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안 화·정인보·문일평·신채호 등 국학파의 국문학에 대한 관심은 전문 학술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계몽적인 요소가 앞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뚜렷하였다. 국학파가 고증에 철저하지 못하고 박람 강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증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은 근대적인 문학 연구방법론의 수용이 부족하였고, 전문적인 문학연구자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니는 한계였다. 오히려 국학파의 국문학 연구는 식민지 현실을 국학, 특히 국문학의 발전으로 극복하고자 한 민족의식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병기 등이 주도한 ‘時調 부흥운동’과 같은 움직임이 그러한 한 예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 2) 실증주의적 국문학 연구와 그 분화

1920·30년대 안 화이나 문일평·정인보 등의 국학파의 문학사 인식은 博覽強記한 대신 정밀한 고증이 부족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면 경성제국대학 朝鮮語及文學科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전문적인 국문학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그들 가운데 趙潤濟·金在喆·李在郁 등이 주도한 朝鮮語文學會가 1930년 조직되고, 이어 《朝鮮語文學會報》가 발간되었다. 또 이들의 일부는 조선어문학회가 해체된 이후에는 국학연구단체로 1934년 창립된 震檀學會에 참여하여 연구활동을 계속하였다.

20) 시조부흥운동에 관해서는 金容稷, 《韓國近代詩史》下(學研社, 1986) 및 조동일, 앞의 책을 참조할 것.

金台俊·김재철·조운제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업적을 냈는데, 각기 소설·연극·詩歌라는 3대 분야에서 전문화된 문학사를 서술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국문학 연구는 방법론상으로 크게 진보하였으며, 특히 실증주의적인 부분에서 국학과에 비하여 훈련되어 있었다. 경성제대 졸업생들은 국학과가 빠져들지 못할 맹목적이고 국수적인 문화우월의 태도를 극복하면서 국문학 연구를 순수과학의 정립에 충실하고자 했으나, 당시 현실과제에 대한 대응력의 약화, 소극성을 띠는 한계를 노출하였다.<sup>21)</sup> 물론 그들이 그들 나름으로 그러한 현실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민한 것은 요절한 김재철 이외에 김태준이 공산주의운동에 직접 참여한 것이나, 조운제가 신민족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경성제대 조선어급문학과와 유일한 제1회 졸업생인 조운제는 초기에 소설사에 관심을 가졌으나, 곧 시가로 그 관심을 바꾸었다. 1937년 자비출판한 《朝鮮詩歌史綱》은 한국의 시가문학을 학술적인 체계를 세워 논의한 최초의 저술이었다.<sup>22)</sup>

《조선시가사강》에서 조운제는 조선시가의 발생시대(원시~불교 수입 이전)－향가시대(불교 수입 이전~고려 초년)－시가의 漢譯時代(고려 초기~말기)－舊樂 청산시대(조선 태조~연산조)－가사 誦詠時代(중종~임란 이전)－시조문학 발원시대(임란 이후~숙종)－시가 撰集時代(경종~정조)－唱曲 왕성시대(순조~순종)로 시가문학을 시대구분하였는데,<sup>23)</sup> 향가·시조·景幾體歌 등을 중심으로 왕조사와 무관하게 시가의 변천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시가의 형식문제에 관심을 가져, 형식이 곧 이념이라고 보았다.<sup>24)</sup> 조운제가 시조의 형식을 해명하기 위하여 字數에 관하여 통계적인 노력을 보였던 것도,<sup>25)</sup> 그만큼 형식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조운제의 실증주의적인

21) 송희복, 앞의 책, 56쪽.

22) 조운제에 전반적인 이해에는 金允植,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일지사, 1984)와 柳浚弼, 〈形成期 國文學研究의 展開樣相과 特性〉(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에 크게 의지하였다.

23) 趙潤濟, 《朝鮮詩歌史綱》(東光堂書店, 1937), 3~4쪽.

24) 金允植, 앞의 책, 34쪽.

25) 趙潤濟, 〈時調字數攷〉(《新興》4, 1931) 참조.

측면을 알려주기도 한다. 1940년대에 민족사관을 내세우게 되는 그가, 1930년대에는 사관보다 실증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국문학에 한문학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문학 연구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조운제는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진정한 의미의 조선문학은 이 시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지만,<sup>26)</sup> 한문학 가운데에서도 내용과 형식을 담은 것은 포함시키고자 하였다.<sup>27)</sup> 실제로 《조선시가사상》에서 고대와 고려뿐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이후에도, “한문의 그림자에 들어 있는 문학의 알맹이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이었다.<sup>28)</sup>

조운제가 시가의 형식의 탐구를 통하여 시가사의 체계화 작업에 힘쓰며 주목한 것은 확인 가능한 수량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시가의 내적 특성이었다.<sup>29)</sup> 그것은 실증적인 순수학문으로의 과정이었고, 그 결과는 향가-경기체가(고려 장가)-시조-가사의 계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시가형식론은 비역사적 성격을 주요한 특성으로 하고 있어 시가사의 서술은 역사적 변화과정을 담아내기 어려웠다.<sup>30)</sup> 조운제가 실증주의에서 민족사관으로 옮겨간 것은 그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 시가를 생활과 연결시켰던 그가 시가 연구의 과정에서 “시가와 국민성은 실로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가 그토록 형식을 강조한 時調를 “조선민족의 정신을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던 점은,<sup>31)</sup> 뒤에 형식을 벗어나 생활의 변화와 같은 역사성이 반영되는 민족사관으로 옮겨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짐작되기도 한다. 아무튼 일제 강점기 조운제의 국문학연구는 식민지 현실에서의 순수학문 연구자의 한계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6) 趙潤濟, 앞의 책, 160쪽.

27) 趙潤濟, 〈朝鮮文學과 漢文學의 關係〉(《東亞日報》, 1929년 2월 19일)에서, “나는 결코 적극론과 같이 ‘此身死了死了’ 그대로를 조선문학이라고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문으로 표현한 중에 沈在하여 있는 조선문학을 내어오자는 것이다. … 내가 여기서 말하는 沈在한 조선문학이라 하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한 작품의 내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보다도 日光을 보지 못한 연약한 형식이거나 형식을 구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8) 趙潤濟, 앞의 책, 88~89쪽.

29) 柳浚弼, 앞의 글, 220~221쪽.

30) 柳浚弼, 위의 글, 265쪽.

31) 趙潤濟, 앞의 책, 2·115~116쪽.

소설사에 팔목할 업적을 남긴 김태준은 경성제대 支那(중국)어문학과 출신이었다. 그는 대학 졸업 직전인 1930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조선일보》에 〈朝鮮小說史〉를 연재하였으며, 1931년에 《朝鮮漢文學史》를, 1933년에 《朝鮮小說史》를 간행한 바 있다. 《조선소설사》는 1939년 《增補 朝鮮小說史》로 다시 간행되었다. 물론 그는 소설사에 국한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시가 등 다른 분야 및 한국사와 중국문학에 관해서도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sup>32)</sup> 특히 그는 실증주의의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점차 유물사관에 경도되어 사회경제사학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1940년에는 경성콤그룹에 참여하여 1941년에 투옥되기도 하였으며, 1944년 말에는 중국공산당의 본거지인 延安으로 탈출하는 행동가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sup>33)</sup>

김태준은 《조선한문학사》를 통하여 전통한문학을 청산하고자 하였다. 그 스스로가 “나의 한문학사는 조선 한문학의 결산보고서가 된다”고 하였고,<sup>34)</sup> 그 결론에서 “재래의 한문학은 경향에 약간 殘喘을 보존하고 있지만 자연도태로써 신선하게 刷掃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 새 것을 배워서 신문화의 건설에 힘쓰자! 이것이 조선 한문학사의 웨치는 표어”라고 하였던 것이다.<sup>35)</sup> 즉 김태준은 한국의 한문학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선 표기문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그 나라 고유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면 국민문학이 아니라는 관점에 서 있었고,<sup>36)</sup> 조선문학은 “순전히 조선 문자인 ‘한글’로서 향토 고유의 사상감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sup>37)</sup> 물론 그렇지만 실제 문학사의 서술에 있어 김태준이 그 같은 원칙론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동시에 봉건귀족의 문학인 한문학의 청산을 통하여 신문학의 출발을 기대한 것이기도 하다. 비록 《조선한문학사》가 나열식이고 방법론이 부재하였다고 그 스스로 술회하였

32) 김태준의 문학 전반에 관해서는 박희병, 〈天台山人の 국문학 연구〉 상·하(《민족문학사연구》 3·4, 1993) 및 柳浚弼, 앞의 글을 참조할 것.

33) 임영태, 〈혁명적 지식인 김태준〉(《사회와 사상》 창간호, 1988).

34) 金台俊, 《朝鮮漢文學史》(朝鮮語文學會, 1931), 6쪽.

35) 金台俊, 위의 책, 191쪽.

36) 金台俊, 《朝鮮小說史》(清進書館, 1933), 13쪽.

37) 金台俊, 앞의 책(1931), 4쪽.

고,<sup>38)</sup> 실제 고증이 잘못된 곳도 있지만, 실증주의가 두드러지는 저술이었다. 그리고 한학에서 문학을 분리시키고, 시문 중심의 한문학에서 수필·야담·소설을 적극적으로 다루며, 여성문학·중인문학·서얼층의 문학에 주목한 점 등은 이 저술이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여류문학의 경우에는 국문학·한문학의 구별과 무관하게 1932년 말부터 《조선일보》에 별도로 연재하였다.<sup>40)</sup>

《조선소설사》는 소설만을 다룬 최초의 문학사이다. 설화시대로부터 당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소설사를 5기로 나누어 체계화를 시도한 이 저술은 널리 자료를 섭렵하여 실증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다만 소설사의 맥락이나 작품론에 소홀하였다는 지적과, 영조·정조대에 근대소설이 나타났다는 주장을 치밀한 논리 없이 분위기 전달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있다.<sup>41)</sup> 아무튼 그는朴趾源의 작품과 《춘향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박지원의 한문소설을 소설사에서 크게 강조한 점으로도 그가 국문문학만을 국문학이라고 한 원칙론에 별로 구애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예사회학으로 경도된 김태준의 연구는 특히 1933년에 발간된 《조선소설사》를 증보하여 1939년 출간한 《증보 조선소설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소설사》를 간행한 이후의 소설 연구들이 증보판에 포함되었는데,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계급사관이 강조된 부분들이 수정되었던 것이다.<sup>42)</sup> 예컨대 〈九雲夢〉이나 〈兩班傳〉을 계급사회와 관련시켰다던가, 〈興夫傳〉을 경제와, 〈春香傳〉을 특권계급에 대한 반항과 서민계급의 승리·평등사상 고취 등으로 인식한 점에서 그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사실 김태준이 《동아일보》 1935년 1월에 연재한 〈春香傳의 現代的 解釋〉은 문예사회학적인 대표적인 연구로, 시대성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작품과 문학·사회·역사의 접맥을 이루어 내고 있었다.<sup>44)</sup>

38) 金台俊, 〈朝鮮漢文學史方法論〉(《學燈》 6, 1934).

39) 박희병, 앞의 글(상), 262~263쪽.

40) 박희병, 위의 글(하), 193~197쪽.

41) 조동일, 앞의 책, 254쪽.

42) 柳浚弼, 〈金台俊의 朝鮮小說史와 增補 朝鮮小說史 대비〉(《韓國學報》 78, 1995).

43) 박희병, 앞의 글(상), 255~256쪽.

44) 〈春香傳의 現代的 解釋〉은 김태준의 校注로 1938년 學藝社에서 발간한 《原本 春香傳》의 해설로 재수록되었고, 《增補 朝鮮小說史》에도 같은 내용이 정리되



소설과 더불어 김태준은 가요를 중시하였는데, 1933·34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朝鮮歌謠概說〉을 통하여 확인된다. 그의 관심은 가요의 ‘민족적 고유성’과 ‘민중성’이었다. 그는 특히 시조가 민중과 隔絶된 상층가요였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민중화한다고 파악하였고, 민요는 계급·사회·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sup>45)</sup> 김태준의 초기 저술에서부터 유물사관·계급사관의 분위기가 적지 않지만,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아마도 1933년 이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김태준은 실증주의와 함께 유물사관을 연구방법론으로 수용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주관을 배제하고 자료를 중시하는 실증주의는 역사발전법칙과 계급을 강조하는 유물사관과는 대립되는 관점이지만, 실증주의의 학문적 배경에서 유물사관의 방법론을 구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본인은 실증주의를 배격하고자 하였지만, 근대적 연구방법론으로 익숙하게 된 실증주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김태준은 과학성과 민중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러한 면에서 국학과의 연구는 문학이나 역사학이나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학운동에 대한 비판 역시 관념적인 조선학이 아니라, 현실에 사는 일반의 행복을 위한 조선학 연구를 수립해야 하였기 때문이다.<sup>46)</sup>

연극사에 관한 관심이 이 시기에 있었던 점도 주목된다. 특히 전통시기의 가면극과 인형극, 그리고 판소리가 그 주된 대상이 되었는데, 민중의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연극사에 관련된 저술로는 金在喆의 《朝鮮演劇史》(1933)와 鄭魯湜의 《朝鮮唱劇史》(1940)가 간행되었다.

김재철의 《조선연극사》는 그의 대학 졸업논문을 확대하여 1931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바 있던 것을 수정한 것으로, 김재철이 요절하자 조선어문학회에서 발행하였다. 한국 최초로 연극사를 정리한 이 저술은 제1편 가면극·제2편 인형극·제3편 舊劇과 新劇·제4편 결론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으로 ‘꼭

---

어 있다. 이 글에 관해서는 박희병, 위의 글(상), 268~275쪽에 상세한 논의가 있다.

45) 김태준의 가요연구에 관해서는 박희병, 위의 글(하), 166~193쪽.

46) 金台俊, 〈朝鮮學의 國學的 研究와 社會學的 研究〉(《朝鮮日報》, 1933년 5월 2일).

두각시극'의 각본이 수록되어 있다. 가면극과 인형극에 관한 부분은 상세한 문헌자료를 들어 내용과 성격, 계통을 고찰하였다. 제3편은 廣大에 관한 어원고증을 비롯하여 그 내력과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특히 전통연극의 발달과정 및 성격과 형식까지 실증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연극사의 시대 구분은 왕조사에 머물렀으며, 연극이 고대의 제의-신라의 演戲-고려의 山臺雜劇-조선의 山臺都監劇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舊劇으로 판소리·창극을, 신극은 圓覺社 이후의 활동을 다룬 것이었다.<sup>47)</sup>

《조선연극사》에서 김재철은 가면극이나 인형극의 내용을 통하여 평민들이 양반에 대하여 비판하고 풍자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sup>48)</sup> 창립되지도 않은 프로劇이나 좌익극단에 대하여 언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회주의적 관점이 어느 정도 투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신극 수립에 상당한 업적을 보인 劇藝術研究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sup>49)</sup> 따라서 전통극의 원리나 그 계승 등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서구의 근대극을 연극의 교과서로 삼아 전통극을 재단하였다는 평을 면하지 못하였다.<sup>50)</sup>

《조선창극사》는 사회주의운동가였던 정노식의 저술로 1940년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판소리를 정리한 이 저술은 여류명창 8명을 포함하여 89명에 달하는 판소리 명창에 대한 약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판소리 관계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하였다. 앞부분에 실은 '창극의 논고 및 자료'는 판소리를 언급한 단평들을 소개한 것이고, 판소리에 대한 약간의 이론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창극사》는 실증주의의 업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저술로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sup>51)</sup>

〈崔起榮〉

47) 金在喆의 《朝鮮演劇史》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송희복, 앞의 책, 64~69쪽.

李東英, 《韓國文學研究史》(釜山大 出版部, 1999), 279~301쪽.

유영대, 〈金在喆의 演劇理論考〉(《現代文學》1984년 10월호).

48) 金在喆, 《朝鮮演劇史》(朝鮮語文學會, 1933), 54~55·107~109쪽.

49) 徐恒錫, 〈蘆汀金在喆著 朝鮮演劇史〉(《東亞日報》, 1933년 6월 24일).

50) 趙東일, 앞의 책, 255쪽.

51) 《朝鮮唱劇史》에 대한 소개는 李東英, 앞의 책, 302~322쪽.

## 3. 국사학

일제 강점기의 한국사 연구 역시 국어·국문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주의사학이 세력을 떨치는 상황에서, 한국사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되는 일이었다. 특히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되던 한말에 출발한 계몽적인 민족주의사학은 보다 성숙해지면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朴殷植과 申采浩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1930년대 국내에서는 ‘朝鮮學運動’이 전개되었는데, 安在鴻·鄭寅普·文一平 등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사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1920년대 이후 한국사 연구는 좀더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보편성이 강조된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이해하고자 한 사회경제사학과, 문헌고증을 중시한 실증사학이 민족주의사학과 더불어 식민지 시기의 한국사 연구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白南雲·李清源 등이 사회경제사학을 대표한다면, 李丙燾·李相佰 등이 실증사학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민족주의사학자들이 전통교육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들은 주로 일본에서 근대교육을 이수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 세 가지 연구방법론을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물론 이것은 일제 강점기에 전개된 역사학 연구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의 특징적인 학문적 조류를 강조한 편의적인 분류이다.<sup>1)</sup>

1) 일제 강점기의 역사학 전반에 관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이 글의 전개에 있어 별도의 인용이 없어도 이들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發達〉 1·2(《文學과知性》 4·9, 1971·1972).

李基白, 〈國史學〉(《韓國現代文化史大系》 2,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7).

姜萬吉, 〈日帝時代의 反植民史學論〉(《韓國史學史의 研究》, 乙酉文化社, 1985).

鄭在貞, 〈日帝時代 歷史學의 思潮와 歷史意識〉(《韓國思想史大系》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李萬烈, 〈日帝下의 文化運動〉(《韓國現代史의 諸問題》, 乙酉文化社, 1987).

이철성, 〈식민지시기 역사인식과 역사서술〉(《한국사》 23, 한길사, 1994).

조동걸·한영우·박찬승 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1994.

일제의 관학자들이 주도한 식민주의사학은 한국사의 왜곡과 말살에 뜻을 두고 있었다. 즉 식민주의사학은 타율성과 정체성을 내세우며 일제의 한국 침략의 정당성과 그 지배의 합리화를 기도하였던 것이다. 바로 일제 강점기에 식민주의사관이 극성을 부렸는데, 민족주의사학뿐 아니라 사회경제사학과 실증사학 역시 그 극복을 추구하고 있었다.

### 1) 민족주의사학

민족주의사학은 정신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이미 국권을 상실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사학자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민족정신을 강조하였던 것이다.<sup>2)</sup> 특히 박은식의 경우에 그 점이 잘 드러나는데, 그는 이미 한말 《皇城新聞》을 통해서도 ‘國魂’의 중요성을 내세운 바 있었다.<sup>3)</sup> 그는 1915년 저술한 《韓國痛史》의 緒言에서 역사저술의 목적이 민족정신 곧 ‘神’을 보존함에 있다고 밝힌 것이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는 滅할 수 있으나 역사는 가히 멸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대개 나라는 形이고 역사는 神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形은 허물어졌으나 神만이 獨存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이 痛史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神이 보존되어 멸하지 않으면, 形이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朴殷植, 〈韓國痛史〉, 《朴殷植全書》上,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75, 24쪽)

그리고 그는 《한국통사》의 결론에서 國敎·國學·국어·국문·국사 등을 魂으로, 錢穀·卒乘·城池·船艦·器械 등을 魄이라 하고, 魂이 살아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sup>4)</sup> 즉 박은식은 정신, 또는 혼을 역사로 이해하였고, 역사가 존재하면 國魂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 셈이었다. 그가

김기승, 〈식민사학과 반식민사학〉(《한국역사입문》 3, 풀빛, 1995).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나남, 1998).

2) 민족주의사학에 관해서는 주 1)을 제외하고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李萬烈, 《韓國近代 歷史學의 理解》(文學과知性社, 1981).

韓永愚, 《韓國民族主義歷史學》(一潮閣, 1994).

3) 《皇城新聞》, 1908년 3월 20일, 논설 〈朝鮮魂이 稍稍還乎〉.

4) 朴殷植, 《朴殷植全書》上, 376쪽.

《한국통사》와 《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저술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였다.

이처럼 정신을 강조한 사관은 박은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얼’을 내세운 정인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東亞日報》에 연재한 〈五千年間 朝鮮의 얼〉에서 정인보는 역사의 근본을 얼에서 구하였는데, 사실의 규명보다도 민족의 정신적인 각성을 강조하고 있었다.<sup>5)</sup>

신채호는 박은식의 혼이나 정인보의 얼보다는 구체적인 郎家思想을 중시하였다. 그는 《朝鮮史研究叢》의 〈朝鮮歷史上 一千年來 第一大事件〉이라는 논문에서 花郎徒의 사상을 낭가사상이라고 하였고, 그것을 한국의 고유사상으로 보았다. 그 고유한 낭가사상이 바로 민족정신의 구현이고 독립사상의 원천이라고 지적한 신채호는 사대적인 유교사상을 외래사상으로 보고, 한국민족사를 고유사상과 외래사상의 투쟁사로 파악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역사를 ‘我和 非我的 투쟁’(《朝鮮上古史》總論)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이민족과의 투쟁사를 포함하지만 사상적인 투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sup>6)</sup> 문일평 또한 〈崔瑩과 朝鮮精神〉이라는 글에서,<sup>7)</sup> 한국사의 전개를 大朝鮮精神과 小朝鮮精神의 대립과 갈등으로 설명한 바 있었다. 그는 그것을 自尊思想과 漢化思想, 또는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로도 표현하였는데 사상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같은 문일평의 ‘조선정신’은 신채호가 제시한 낭가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 문일평은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朝鮮心’이라는 용어와 함께 《訓民正音》으로 대표되는 ‘조선사상’을 논의하기도 하였다.<sup>8)</sup>

이처럼 민족주의사학에서는 한국사를 움직이는 축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고 있었다. 사학자에 따라서 표현이나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이고 관념적이었다. 민족주의사학자들은 민족과 개인을 단일체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나 계급과 같은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신채호가 《讀史新論》에서 “국가의 역사는 민족 소장성쇠의 상태를 闕敍할 者”라고

5) 李基白, 앞의 글, 163~164쪽.

6) 李基白, 위의 글, 165~166쪽.

7) 《朝鮮日報》, 1929년 6월 29일~7월 11일.

8) 文一平, 〈史眼으로 본 朝鮮〉(《湖岩全集》2,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15쪽.

언명한 것처럼,<sup>9)</sup> 역사를 민족정신의 기운에 따른 盛衰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타파하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족정신의 고양을 역사서술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國魂 중심의 민족주의 의식에서 출발한 박은식의 역사학은 ‘舊本新參’을 내세우고, ‘近世新史’의 체제를 따라 역사를 서술한다고 하여 한말 사학의 전 근대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보인 시대구분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된다. 그러나 그는 영웅사관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독립운동의 영웅이지만 《安重根傳》이나 《李儁傳》 등을 1910년대에 저술하였다. 《李舜臣傳》의 저술 역시 그러한 면에서 이해된다. 물론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며, 민중이 역사의 주역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는 점도 확인된다. 따라서 박은식의 역사학은 계몽주의 역사학의 단계에서 근대 민족주의사학으로 넘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sup>10)</sup>

민족주의사학은 신채호에서 성립되었다고 이야기된다.<sup>11)</sup> 그는 한말에 〈歷史와 愛國心の 關係〉라는 글을 쓴 바 있는데,<sup>12)</sup> 역사를 애국심의 원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신채호가 관심을 집중한 분야는 한국고대사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이라 할 수 있는 《독사신론》·《조선상고사》·《朝鮮上古文化史》·《조선사연구초》가 모두 고대사에 관한 것이었다. 夫餘－高句麗 중심의 전승체계와 前後三韓說을 근간으로 하여 한국고대사를 새롭게 체계화한 신채호는, 역사를 ‘我와 非我的 투쟁의 기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조선상고사》〈總論〉 첫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9) 申采浩, 〈讀史新論〉(《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上, 螢雪出版社, 1977), 471쪽.

10) 박은식의 역사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愼鏞廈, 〈朴殷植의 歷史觀〉(《歷史學報》90·91, 1981).

尹炳喜, 〈白巖 朴殷植의 歷史意識〉(《水邨朴永錫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下, 探求堂, 1992).

11) 신채호의 역사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申一澈, 《申采浩의 歷史思想研究》(高麗大學校出版部, 1981).

李萬烈,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 研究》(文學과知性社, 1990).

12) 申采浩, 〈歷史와 愛國心の 關係〉(《大韓協會會報》3, 1908).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我’와 ‘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心的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인류의 그리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면 조선민족이 그리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무엇을 ‘我’라 하며, 무엇을 ‘非我’라 하느뇨. 깊이 팔 것도 없이 알게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선 자를 ‘我’라 하고, 그 외에는 ‘非我’라 하나니…(申采浩, <朝鮮上古史>,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上, 31쪽).

신채호는 사실의 고증을 역사학의 임무로 생각하고, 類證・互證・追證・反證・辨證 등의 방법과 언어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수준높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것은 이념을 앞세운 민족주의사학이 빠지기 쉬운 교조적인 역사서술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역사에 주체에 관해서도 신채호는 민중을 상정하였다. 그 역시 영웅을 중시하였으나, 국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영웅이 아니라, 국민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新國民’을 제기하였다. 1920년대에 이르러 신채호가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은 그가 집필한 <朝鮮革命宣言>(1923)을 통해서도 짐작되는 일이다. 그는 또한 역사연구에서 正統論이나 大義名分論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주자학적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신채호의 연구가 민족주의사학을 근대 역사학으로 자리잡게 하였던 것이다.<sup>13)</sup>

박은식과 신채호의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주된 역사적 관심도 민족의 祖先이 되는 단군을 비롯하여, 한국민족이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였다고 생각되는 부여-고구려-渤海와 연계된 만주지역이었다. 만주를 기반으로 삼아 국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사학자들 가운데에는 직접・간접으로 大倭敎와 관련을 맺기도 하였다. 물론 박은식은 그러한 관심과 더불어 빼앗긴 국권의 회복을 기대하며 근대사에 눈을 돌리기도 하였고, 문일평은 근대문화의 수용과 관련하여 근대사에도 많은 업적을 남긴 바 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한국사 연구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정치한 고증이 뒤따르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주뿐 아니라 중국 북부까지도 한민족이 지배하였다는 國粹的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13) 이상의 내용은 李萬烈, 앞의 책이 상세하다.

국내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1934년을 전후하여 전개된 朝鮮學運動을 주도하고 있었다. 안재홍·정인보·문일평 등이 깊이 관여한 조선학운동은 1934년 9월 茶山 逝去 99 주년기념사업을 계기로 비롯되었는데, 특히 新朝鮮社가 丁若鏞의 전집인 《與猶堂全書》의 간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안재홍과 정인보가 《여유당전서》의 교열을 맡았던 것이다. 정인보·안재홍·문일평·玄相允을 연사로 한 기념강연회도 개최되었다. 정인보는 〈茶山先生과 朝鮮學〉이라는 강연을 통하여, 다산에 관한 연구를 조선학과 결부시켜 이해하였다. 안재홍은 조선학의 개념을 막연하게나마 정리하였고, 단군조선과 실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사회경제사학자들의 비판이 뒤따랐는데, 그들은 진정한 조선학의 수립은 유물사관에 기초한 과학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정치적 약진이 불리한 시기에 ‘最善한 차선택’으로서의 문화운동으로 조선학운동을 인식하였고, 개량적이지만 현실적인 운동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선학운동은 조선의 후진적 특수성을 세계속의 조선을 알기 위한 조선 고유의 ‘문화특수성향’의 탐구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종래의 문헌학적·해석학적 방법론을 탈피하지는 못하였다.<sup>14)</sup>

민족주의사학은 일제 강점하에서 식민주의사학에 대항하고 있었다. 민족과 개인을 한 단위로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였으며, 국수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한국사의 원동력을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찾고 있었으나,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데 진력하였다. 민족주의사학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과학적 지식과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구체성과 객관성을 지닌 역사인식으로 세련되어 가기도 하였다.<sup>15)</sup> 1940년 전후 실증사학에 경도되어 있던 孫晉泰나 李仁

14)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韓永愚, 〈韓國學의 概念과 分野〉(《한국학연구》 1, 단국대한국학연구소, 1994).

이만열, 〈국학의 성립 발전과 그 과제〉(《東方學志》 100, 1998).

임형택, 〈국학의 성립과정과 실학에 대한 인식〉(《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2000).

全胤善, 〈1930年代 ‘朝鮮學’ 振興運動 研究〉(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8).

15) 鄭在貞, 앞의 글, 61쪽.



榮 등이 신민족주의사학을 논의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6)</sup>

## 2) 사회경제사학

1920년대 마르크스주의가 도입되고 성행하면서 한국사를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른바 세계사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일원론적 역사발전법칙으로서의 사적 유물론을 한국사에 적용하고자 한 이들은 한 시대의 생산관계를 해명하고, 또 그것이 역사의 어느 발전단계에 해당되는가 하는 시대구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의 역사학을 사회경제사학이라 지칭한다.<sup>17)</sup>

그 대표적인 인물이 東京商科大學 출신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 연희전문학교 상과 교수로 있던 白南雲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는 한국사를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파악한 《朝鮮社會經濟史》와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을 저술하였다. 각기 한국의 원시 및 고대와 고려사를 다룬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미간행된 《조선봉건사회경제사》下는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를 다룰 예정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유물사관을 수용한 학자들은 백남운과 더불어 李清源·

16) 신민족주의사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李基白, 〈新民族主義史觀論〉·〈新民族主義史觀과 植民主義史觀〉(《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

金貞培, 〈新民族主義史觀〉(《韓國古代史論의 新潮流》, 高麗大 出版部, 1980).

李基白, 〈孫晉泰의 學問과 業績〉·〈韓國史研究의 方法論的 反省〉(《韓國史像의 再構成》, 一潮閣, 1991).

이필영,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의 성격〉(《韓國學報》 41, 1985).

韓永愚, 〈孫晉泰의 新民族主義史觀〉(《韓國民族主義歷史學》, 一潮閣, 1994).

김수태, 〈손진태의 식민주의사관 비판〉(《古玄益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간행 위원회, 1996).

남근우, 〈손진태의 민족문화론과 만선사학〉(《역사와 현실》 28, 1998).

17) 사회경제사학에 관해서는 주 1)의 연구 이외에 다음이 참고된다.

李基白, 〈實證史學과 社會經濟史學의 問題〉(《民族과 歷史》 新版, 一潮閣, 1994).

——, 〈唯物史觀的 韓國史像〉(《韓國史像의 再構成》, 一潮閣, 1991).

姜晉哲, 〈社會經濟史學의 導入과 展開〉(《國史館論叢》 2, 國史編纂委員會, 1989).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金洸鎭·金台俊·李北滿·朴文圭·尹行重·朴克采·全錫淡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문학을 전공한 김태준을 제외하면 대개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었다.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의 첫 부분에서, 한국사 연구의 임무를 “과거에 있어서 역사적·사회적 발전의 변동과정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명하는 동시에 그 실천적 동향을 이론화하는 것”으로 삼고, 그 방법으로 “인류사회의 일반적 운동법칙으로서의 사적 변증법에 의하여 그 민족생활의 계급적 여러 관계 및 사회체제의 역사적 변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그 법칙성을 일반적으로 추상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sup>18)</sup> 그것은 결국 사적 유물론에 의해서만 한국사의 민족생활과 사회구성의 발전을 법칙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식민지 현실의 본질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는 한국사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구성의 단계를 원시공산제사회—노예제사회(삼국 정립기)—아시아적 봉건제사회(삼국시기 말부터 최근세)—외래 자본주의사회(일제하 현재)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sup>19)</sup>

따라서 백남운을 비롯한 사회경제사학자들은 민족주의사학이나 식민주의사관을 특수사관으로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의 앞부분에서 일제의 식민주의사학뿐 아니라 민족주의사학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최근 우리 선배들은 조선사학을 위하여 얼마만한 공헌을 하였을까.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 혹은 문헌고증을 위하여, 혹은 고적답사 및 유물수집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어느 것이나 필요한 일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사학의 영역에서 하나의 새로운, 그러나 불행한 각인으로서의 ‘특수사관’이라는 외래품을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우리 선배일 것이다. … 우리 선배의 기민한 수입은 국정의 격변으로 말미암아 부리를 내리지 못하고 골동품을 수집하는 편력학도로서 정치적으로는 버림을 받게 된 정세이지만,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조선문화사의 독자적인 소유주로서 특수화하려는 기도가 비교적 뿌리깊게 습관화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특수성 외에 이것과는 외관상 다른 官製의 특수성이란 것이 따로 규정되어 유포되어 있다. 그것은 관리 諸公의 ‘조선특수사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특수성의 차이를

18)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改造社, 1933), 5쪽.

19) 白南雲, 위의 책, 序文 3쪽.

찾아보면, 전자가 신비적·감상적인데 대하여 후자는 독점적·정치적인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류사회 발전의 역사적 법칙의 공통성을 거부하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따라서 반동적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사실은 님은꼴의- 특수성은 조선사학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력적으로 배격해야 할 현실적인 대상이다(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1933, 6~7쪽).

구체적으로 그는 《조선사회경제사》에서 단군신화의 해석에 있어 설화적 관념표상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예로 신채호와 최남선을 거명하였고, 실증주의적인 편견성에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예로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와 시라토리 구라기치(白鳥庫吉)·오다 쇼오고(小田省吾)를 비판하였다.<sup>20)</sup> 즉 백남운은 식민주의사학이나 민족주의사학을 특수사관으로 보고 비판하면서, 일원적인 역사법칙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유물사관을 수용한 학자들의 민족주의사학에 대한 비판은 백남운뿐만 아니라, 이청원이나 김태준에게서도 보인다. 특히 정인보가 제기한 ‘얼’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儒敎訓話의이고 정책적이고 반봉건적인 ‘조선학’은 조선의 역사적 과정을 세세사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고유한 신성불가침의 ‘5천년간의 얼’을 탐구하는데 열심이고, 그 공식의 천재는 ‘단군’에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영웅은 ‘李舜臣’의 옷을 빌려 입고, 그 재간 있는 사람들은 ‘丁茶山’의 가면을 쓰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리하여 ‘얼’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비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신흥 역사과학은 물론 이와 대립한다(李清源, 《朝鮮社會史讀本》, 白揚堂, 1936, 1~2쪽).

이렇듯 이청원은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정인보의 〈오천년간 조선의 얼〉을 비역사적인, 신비적인 역사를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김태준은 정인보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비난과 함께, “조선민족을 選民의으로 높이려 하고, 동일한 5천년간의 민족혼을 환기하려는 것은 역사의 왜곡된 선입견과 공연히 허장성세하려는 데서 오는 것으로 역사와 독자들에게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

20) 白南雲, 위의 책, 14~15쪽.

고까지 극언하기에 이르렀다.<sup>21)</sup>

이들은 단군신화를 들어 민족주의사학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었다.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신채호 등의 예로 단군신화에 민족주의사학의 주장을 비판하였지만, 김태준도 같은 맥락에서 단군신화에 대한 일제 관학자들의 합리주의적 假象도 반대하며,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환상적·독자적인 것도 거부한다고 하였다.<sup>22)</sup>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실증사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물론 일제의 관학자들이 실증을 가장하여, 합리주의의 명분 아래 식민주의사학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실증주의와 과학적 이론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실증은 역사적 구체성을 일반화하기 위한 예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백남운은<sup>23)</sup>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고자 한 식민주의사학이 가장한 실증주의를 비판하였던 것이다.<sup>24)</sup> 그리고 그것은 震檀學會를 주도한 한국인 실증사학자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비판을 포함한 것이었다. 김태준은 《震檀學報》 제3권에 실린 논문들을 언급하면서 역사연구에 있어 실증사관에 그치지 않고 유물사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많은 역사적 소재를 갖고 있다. 하나 그를 충분히 비판할 만큼 예리한 칼이 없었다. 과학자의 유일한 무기—특수사관이 아닌 정상적 ‘물적 사관’—으로써 석기인의 생활을 엿보고 고려인의 회화를 보고 고대의 가요를 보고 雄鷄信仰을 보아서 현대와의 어떤 관련하에 流傳되어온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金台俊, 〈震檀學報 第三卷을 읽고〉完, 《朝鮮中央日報》, 1935년 11월 19일).

이렇게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일원적 역사 발전법칙의 적용이 유일한 과학적 방법론임을 강조하였다. 즉 백남운은 사적 유물론을 통해서만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살필 수 있다고 하였고, 결국 그 방법론에 의하여 한국사의 발

21) 金台俊, 〈鄭寅普論〉(《朝鮮中央日報》, 1936년 5월 16일~19일).

22) 李基白, 〈唯物史觀의 韓國史像〉(《韓國史像의 再構成》, 一潮閣, 1991), 179~180쪽.  
金台俊은 〈檀君神話研究〉를 《朝鮮中央日報》 1935년 12월 6일부터 24일까지 1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23) 白南雲, 앞의 책, 428쪽.

24) 방기중, 앞의 책, 138~142쪽.

전단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과 계급투쟁을 역사의 기본 축으로 하여 한국사에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조선 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무리 아시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구성  
의 내면적 발전법칙 그 자체는 오로지 세계사적인 것이며, 삼국시대의 노예제  
사회, 통일신라기 이래의 동양적 봉건사회, 이식자본주의 사회는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조선역사의 기록적 총발전단계를 나타내는 보편사적인 특징이며, 그것  
들은 제각기 특유의 법칙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조선사 연구의 법칙성이 가능  
하게 되며, 그리고 세계사적 방법론 아래서만 과거의 민족생활 발전사를 내면적  
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의 위압적 특수성에 대해 절망을 모르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1933, 9쪽).

나아가 그는 역사연구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뒤적이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을 본질적으로 그대로 파악하는 동시에 장래를 보는 것”으로 주장하였  
다.<sup>25)</sup> 역사학의 실천성이 강조되었다고 하겠다.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일원적 역사 발전법칙 곧 유물사관의 공식을 받아들  
이면서, 특수성이 두드러져 보편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인 민족주의사학을 비  
판하였고, 실증사학도 일정하게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식민주의사학에 대  
해서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틀로써 대항하고 있었다. 물론 유럽의 역사발전을  
기준으로 한 법칙을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사에 적용하려는 공식주의는 한국사 연구의 또 다른 한계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를 사회·경제의 관점에서 사회발전단계론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한 점이나, 피지배계층을 역사의 무대에 세운 점은 사회경제사학  
이 갖는 사학사적 의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식민주의사학의 허구성을 밝히  
고, 한국사를 세계사적 발전과정상에 놓으려고 한 점도 의미가 있었다. 다만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사학자들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옮겨가  
게 되자, 남한에서의 학문적인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다.

25) 白南雲, 〈朝鮮史觀 樹立의 提唱〉(《經濟研究》4, 1933), 3쪽.  
《叢報》(이론과 실천, 1991), 81쪽.

### 3) 실증사학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은 일제의 식민주의사학의 극복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한 관심을 보인 역사학자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는 방편의 하나로 역사학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순수학문을 표방하면서 식민주의사학에 학문적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일군의 역사연구자들도 있었다. 이미 1920·30년대에 이르러 일본과 국내의 대학에서 근대 역사학을 공부한 연구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역사연구자의 수가 늘어났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현실정치의 논리를 초월한 학문적 논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실증사학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과학적·실증적으로 역사학을 연구하고 일본 관학자들의 식민주의사학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실증사학은 개별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순수 학술활동을 목표로,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사를 연구한 학풍을 지칭한다.<sup>26)</sup>

이들 실증사학자들이 일본인 학자들의 주도로 조직된 靑丘學會에 자극을 받아 연구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34년에 창립한 것이 震檀學會였다. 물론 진단학회에는 李丙燾·李相佰·金庠基·孫晉泰·申奭鎬·柳洪烈·高裕燮 등 역사학자들만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金允經·李秉岐·李在郁·李熙昇·宋錫夏·趙潤濟·崔鉉培 등 국어학·국문학·민속학 등 국학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함께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진단학회에 참여한 역사학자들은 모두 그들이 전공하는 분야와 시대가 있었다. 예컨대 이병도는 고대역사지리와 사상사를, 김상기는 대외관계사를, 이상백은 조선건국사와 사회제도사를, 손진태는 원시신앙과 민속을, 신석호는 조선정치사를, 유홍렬은 조선교육사와 사상사를, 그리고 고유섭은 미술사를 전공하였

26) 실증사학의 전반적인 논의는 다음이 참고된다.

金容燮, 〈우리나라 근대역사학의 발달〉 2(《文學과 知性》 9, 1972).

洪承基, 〈實證史學論〉(《現代 韓國史學과 史觀》, 一潮閣, 1991).

李章雨, 〈實證史學的 反성과 전망〉(《韓國史 市民講座》 20, 1997).

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 연구가 세분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는,<sup>27)</sup> 즉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실증사학자들은 사료의 자의적 해석이나 일정한 공식에 역사적 사실을 억지로 적용시키는 역사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식민주의사학을 학문적 논리로써 극복하고자 실증사학을 표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민족주의사학이나 사회경제사학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법칙이나 공식보다는 구체적인 역사사실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하였으며, 식민주의사학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28)</sup>

예컨대 이병도는 일본 관학자들의 문헌비판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고증적인 연구방법으로 주로 고대사와 고려사에 업적을 남겼다. 그는 특히 漢四郡이나 三韓의 위치를 비정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만주로 비정한 한사군을 한반도에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 辰國의 강역을 논급하고 箕子朝鮮을 부인한 韓氏朝鮮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상백은 조선건국을 田制改革이라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치투쟁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또 조선 초기의 斥佛運動 또한 佛寺의 경제력을 몰수하는 데 주요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았다. 김상기는 동학운동을 동학이념의 평등사상과 농민운동을 연결시켜 사회개혁운동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朝貢을 전근대 동양사회의 무역형태의 하나로 파악한 것도 그의 업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구체적인 역사사실을 고증을 통하여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국내에서 일본인 학자들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식민주의사학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었고, 민족주의 사학이나 사회경제사학과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실증사학의 방법론과 역사인식을 잘 드러낸 것이 이상백이었다.

역사의 사실이란 것은 항상 인간성의 전체에 관련하는 것이다. ... 즉 이 역사사실이라는 것은 인간성 전체 위에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여

27) 李基白, 앞의 글(1977), 176쪽.

28) 李基白, 앞의 글(1994), 39쪽.

야 한다. 그러므로 개체가 전체에 관련하는 것은 그 개체를 조금도 變改함이 없이 전체에 관련시킬 수가 있다. 일개의 사건이 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넓게 그 시대 전체에 관련하고 또 국민·민족의 전반에 관련하여 이해되고, 다시 인간 전체에 있어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李相佰, 《朝鮮文化史研究論攷》, 乙酉文化社, 1947, 2쪽).

하나의 구체적인 역사사실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러한 실증사학자들의 관점은, 바로 식민주의사학의 강요나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였다. 또 그는 “어떠한 원칙을 실증하고 결론을 단정함에는, 정밀한 관찰과 確乎한 사실을 전제로 할 것이요, 독단적 해석과 기계적 적용은 진리를 탐구하는 방도가 아니요, 참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sup>29)</sup> 바로 실증사학을 그대로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증사학의 등장에 대하여 정인보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는 실증사학자들이 일본인 학자들을 추종한다고 하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즉 그는 “《三國史記》 등의 우리 사서가 남의 기록은 믿고 우리의 것은 배척하였는데, 우리가 문헌을 존중한다고 하면 역사를 顛倒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였다.<sup>30)</sup>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실증사학의 학문적 방법론에 대한 의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역사연구 목적론과 관련하여 역사 발전의 공식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sup>31)</sup> 즉 사회경제사학자인 이청원은 실증사학자들이 주도한 《진단학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이 학보 제3권의 내용을 보건대 그에는 당연히 제기하여야 할 상당히 귀중한 문제가 많이 있으며, 종래의 케케묵은 通俗史家들보다 엄청난 발전의 자취가 보인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것은 선행자들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발전이 아니고, 오직 그들 선행자들이 제기한 명제를 일반화하고 수정하고 보충하고 다른 일면을 분리하였다는 의미에서 이다. 이 의미에서 우리 학계에 남겨준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러나 그와 동시에 좋지 못한 결과도 산출하였다는 것을 조금도 숨겨서는 아니된다. ‘사회적 윤행을 초월한

29) 李相佰, 《朝鮮文化史研究論攷》(乙酉文化社, 1947), 9쪽.

30) 鄭寅善, 〈與文湖岩一平書〉(《舊園文錄》, 延世大 出版部, 1967), 331~337쪽.

31) 李基白, 앞의 글(1994), 37~39쪽 및 앞의 글(1991), 184~187쪽.



純粹思惟'이니 '순수한 개인이 자기사상'이니 하는 따위의 '늘 점진적으로라는' 기분 좋은 선율에 나아가는 관념적 사관으로, 이 나라의 젊은 학구자들에게 소화불량의 결과를 주었다는 것이 즉 그것이다. 우리는 늘 이상과 같은 관점과 준비 아래서만 이 숲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李清源, 〈震檀學報 第三卷을 읽고〉, 《震檀學報》 4, 1936, 155쪽).

진단학회의 학문적 분위기를 '순수사학'으로 보고 있던 이청원은 《진단학보》의 업적을 종래의 역사학과는 다른 형태의 발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한계로 사회성의 결여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발전이라는 것도 "선행자들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발전이 아니고, 오직 그들 선행자들이 제기한 명제를 일반화하고 수정하고 보충하고 다른 일면을 분리하였다는 의미"라고 제한시키고 있었다. 이 경우에 실증사학이 문헌비판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일제의 식민주의사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짐작된다.

실증사학자들은 식민지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족의 저항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사명감에서보다는 한국사 연구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민족적이라는 생각에서 한국사를 연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 스스로 밝혔듯이 일제에 대한 민족적이고도 학문적인 대결 의식이 연구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보인다.<sup>32)</sup> 철저한 문헌고증으로 학문적인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일본인 학자들의 업적을 넘어설 수 있던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아무튼 실증사학자들이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적 태도는 한국사학이 근대 역사학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엄격한 사료 비판과 철저한 고증을 연구의 기본 전제로 삼아,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연구업적을 쌓았다. 물론 실증적인 연구방법은 실증사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역사학 연구의 기본적인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실증사학자들이 일제 관학자들이 세운 한국사 인식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개별적

32) 李丙燾, 〈創立에서 光復까지〉(《震檀學會六十年誌》, 震檀學會, 1994), 231쪽.  
李章雨, 앞의 글, 33쪽.

이고도 구체적인 사실의 해명에만 목표를 둔 이른바 사건 서술적인 역사학이었다는 비판도 있다.<sup>33)</sup> 또 실증사학자들이 밝혀낸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곤 한다. 그러한 비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그 시대적 한계이기도 하며, 그 또한 극복해 나가야 할 점이였다. 다만 실증사학자들이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의 극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崔起榮〉

---

33)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 敍述〉(《歷史學報》 31, 1966), 147쪽.  
——, 앞의 글(1972), 508쪽.